

2010년 8월

석사학위 논문

한·중 여성호칭어의 사회언어학적 대조 연구

-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동 흠

한·중 여성호칭어의 사회언어학적 대조 연구

-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중심으로 -

A Sociolinguistic Contrastive Study on the Female
Address Terms of Korean and Chinese Languages

2010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동 흠

한·중 여성호칭어의 사회언어학적 대조 연구

-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강 희 숙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동 흠

동흡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印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印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印

2010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선행 연구	2
1.3. 연구의 전개	5
II. 여성 호칭어의 개념과 유형	6
2.1. 여성 호칭어의 개념 및 범위	6
2.2. 여성 호칭어의 유형 및 특징	7
2.2.1. 여성 호칭어의 유형	7
2.2.1.1. 한국어 여성 호칭어의 유형	7
2.2.1.2. 중국어 여성 호칭어의 유형	8
2.2.2. 여성 호칭어의 유형별 특징	9
2.2.2.1. 여성 친족 호칭어	9
2.2.2.2. 여성 비친족 호칭어	11
III. 한·중 여성 호칭어 유형별 대조	14
3.1. 한·중 여성 친족 호칭어	14
3.1.1. 한·중 여성 친족 호칭어의 대조	14
3.1.1.1. 한·중 여성 친족 호칭어의 유사점	18
3.1.1.2. 한·중 여성 친족 호칭어의 차이점	22
3.1.2. 여성 친족 호칭어의 대조를 통해 본 한·중 여성의 가족 내 지위	27
3.2. 한·중 여성 비친족 호칭어	29
3.2.1. 한·중 여성 비친족 호칭어의 대조	29
3.2.1.1. 한·중 여성 이름 호칭어	29
3.2.1.2. 한·중 여성 직함 호칭어	34

3.2.1.3. 한·중 여성 대명사형 호칭어	39
3.2.1.4. 한·중 여성 통칭 호칭어	42
3.2.1.5. 한·중 여성 의사(疑似) 친족 호칭어	45
3.2.1.6. 한·중 기타 여성 호칭어	57
3.2.2. 여성 비친족 호칭어의 대조를 통해 본 한·중 여성의 사회적 지위	58
 IV. 결론	 63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 한·중 부계 여성 친족 호칭어	14
〈표 2〉 한·중 모계 여성 친족 호칭어	16
〈표 3〉 한·중 부부계 여성 친족 호칭어	17
〈표 4〉 부계와 모계에 따른 여성 호칭어	18
〈표 5〉 친자매/중자매/외중자매에게 사용하는 호칭어	19
〈표 6〉 어머니/친자매에게 사용하는 호칭어	20
〈표 7〉 며느리/아내에게 사용하는 호칭어	20
〈표 8〉 누이/형의 아내에게 사용하는 호칭어	22
〈표 9〉 동생에게 사용하는 호칭어	23
〈표 10〉 딸/여동생에게 사용하는 호칭어	23
〈표 11〉 시누이/아내의 여동생에게 사용하는 호칭어	24
〈표 12〉 아내의 어머니에게 사용하는 호칭어	25
〈표 13〉 아내의 어머니와 아버지 친족에게 사용하는 호칭어	25
〈표 14〉 조카딸에게 사용하는 호칭어	26
〈표 15〉 사회적 변수에 따른 한·중 여성 친족 호칭어의 특징	28
〈표 16〉 한국어 여성 이름 호칭어의 결합 양상	30
〈표 17〉 중국어 여성 이름 호칭어의 결합 양상	32
〈표 18〉 여성 2인칭 대명사형 호칭어의 제약적 양상	41
〈표 19〉 한·중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의 양상	46
〈표 20〉 사회적 변수에 따른 한·중 여성 비친족 호칭어의 특징	60

ABSTRACT

A Sociolinguistic Contrastive Study on the Female Address Terms of Korean and Chinese Languages (Focusing on the social status of women)

DONG XIN

Advisor: Prof. Kang hui-suk,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address terms are an important part of sociolinguistics because it contains notions of language, culture and society. In this paper the female address terms of both Korean and Chinese languages have been contrasted and analyzed in regards to terms commonly employed between relatives and non-relatives, then to find out the features of the female address terms and social status of women for both Korea and China.

Female address terms between relatives can be described as below.

(1)According to the different linguistic variables(age, gender, marital status, generational situation), the use of different female relative address terms in present.

(2)About gender impacts, for example, a Korean husband can call his mother-in-law his '장모님' or '어머님', but for a Chinese man, the mother-in-law will be called '妈妈(어머님)' only.

(3)Depending if women are married or not, usage of different female address terms exist in Korean.

(4)According to seniority in the family's women hierarchy, to use the different female address formulas are customary.

Female address terms between non-relatives can be summarized as below.

(1)According to the different linguistic variables(age, gender, marital status, generational, political affiliations and so on), the use of different female

non-relatives address terms is warranted.

(2) Gender has a major impact on the female address terms in both Korean and Chinese. For example, in the Korean language, one calls a young woman with her name+'양'.

(3) In the Korean language, one can not call a superior with '2인칭 대명사' which like '너, 자네, 자기'.

(4) Different female address terms will be us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relationships.

(5) Different addressing formulas will be employed based on the age of the listeners. In the Korean language, a young women is called '아가씨' but not '아줌마'.

(6) Different social classes will also be using different address.

(7) Depending if women are married or not, the use of the different female address terms in Korean are employed.

(8) With the different politics, some Chinese female address terms of non-relatives are repeated.

According to linguistic variables (age, gender, marital status, generational situation, politics and so on), the social status of Chinese women is higher than that of Korean women. But, with the dynamic changes of linguistic variables, female address terms will constantly evolve also, so more research will be needed in the future.

I. 서론

1.1. 연구 목적

호칭 또는 호칭어(terms of address)는 일반적으로 화자가 대화의 상대방과 말을 하는 동안에 그 상대방을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words), '어구'(phrases) 또는 '표현들'(expressions)을 의미한다(왕한석 외, 2005:17).¹⁾ 예를 들면, 일상생활 중 흔히 사용하는 친족 호칭, 개인명, 2인칭 대명사 등이 그 대표적인 형태이다.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언어적 장치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박정운, 1997:508). 특정한 호칭 사용에 의하여 화자가 호칭 상대방에 대해 갖는 지위(status)가 쉽사리 식별되기 때문이다(Evans-Pritchard, 1948:221).²⁾ 청자가 여성인 경우, 호칭어를 통하여 그 여성과 화자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더 나아가 계층적 측면에서도 화자와 여성 집단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여성 집단에 대한 호칭어를 통해 바로 여성 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맥락을 전제로 하여 화자와 여성 집단의 사회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 화자와 여성 집단의 사회관계

화 자	⇨	청 자	(화자와 청자의 사회관계)
화 자	⇨	여성 청자	(화자와 여성 청자의 사회관계)
화 자	⇨	여성 집단	(화자와 여성 집단의 사회관계)

본 연구는 한·중 두 언어의 여성 호칭어에 대한 대조를 통해 두 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³⁾를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⁴⁾

1) 호칭어와 관련된 개념으로는 지칭어(term of reference)나 호출어(呼出語, summons) 등이 있다. '호칭어', '지칭어', '호출어'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제2장에서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호칭어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왕한석(2005:20)에서 재인용.

3) '지위'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이다(『표준국어대사전』). 본고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다시 가정에서 여성의 지위와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여성의 지위 두 가지로 분류한다.

4) 본고는 주로 현대 한·중 여성 호칭어를 연구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현대중국어란 1919년 '5·

한국어와 중국어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다. 이는 여성 호칭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예컨대, 한·중 여성 친족 호칭어에서는⁵⁾ 매개 호칭어⁶⁾(즉 ‘창호 엄마’, ‘영숙이 엄마’, ‘英子她媽[영자 엄마]’ 식으로 자녀의 이름에 기대어 부르는 방식)를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여성 비친족 호칭어에서 여성 칭자의 혼인 상태에 따라 호칭어를 다르게 사용한다. 가령, 한국어에서 기혼 여성에게 ‘아가씨’라고 부를 수 없다는 면에서는 중국어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사회가 변화·발전함에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도 여성 호칭어 사용 면에서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여성 친족 호칭어에서 아내의 친어머니를 ‘장모님’ 혹은 ‘어머님’으로 부를 수 있지만, 근래에 중국어에서는 ‘媽媽(어머니)’만 호칭어로 사용된다. 또한, 중국의 경우, 1949년 해방 이후, ‘同志(동무)’라는 비친족 호칭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사회 경제 발전에 따라 ‘동무’를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⁷⁾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일반인에게 ‘선생(老師)’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리고 ‘선생’이라는 호칭은 중국에서 영어의 Mr.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의 변화와 대상에 따라 호칭어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1.2. 선행 연구

본 연구의 기술을 위한 선행 연구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여성 호칭어에 대한 연구, 중국에서 이루어진 여성 호칭어에 대한 연구 및 한국어와 중국어의 호칭어 대조 연구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
- 4운동’ 이후의 한족(漢族) 언어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이는 현대 한민족(漢民族)이 사용하는 공동어인 보통화(普通話)이며, 또한 중국 내의 여러 민족끼리 상호교류를 위한 공동언어이다(정현철, 송상미, 2003:23).
- 5) 기존의 한국어 호칭어 연구에서는 호칭어의 사용을 사람의 혈연관계에 의하여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주로 혈연과 결혼에 의하여 형성된 집단의 구성원인 친족들 간에 사용하는 호칭어이다. 다른 하나는 혈연관계를 떠나서 직장이나 사회에서 사용하는 호칭어로 사교 활동 중에 만나는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나 서로 다른 교제 대상, 친소의 차이, 교제 상황의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비친족 간의 호칭어이다(이재승, 1994:106~111). 이 체계에 의해 본고에서 여성 호칭어는 여성 친족 호칭어와 여성 비친족 호칭어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6) 매개 호칭어의 한 유형은 칭자 집안의 대표적인 아이의 이름을 매개로 호칭하고, 또 하나의 유형은 화자가 자신을 매개체와 동일시하여 매개체로부터 칭자의 친족어를 호칭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본고 제3장 내용 참조.
- 7) ‘同志’라는 호칭어는 언어상의 의미는 평등, 친절은 내포하고 있지만, 인물이나 존경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양훈, 2005:57).

한국에서 이루어진 여성 호칭어에 대한 연구는 연대를 기준으로 하여 크게 20세기 90년대 이전과 20세기 90년대 이후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두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세기 90년대 이전의 여성 호칭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유창돈(1966)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어휘들 가운데서 ‘마노라, 할머니’ 등과 같은 여성 호칭어들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였으며,⁸⁾ 서정범(1969)에서는 여성 관련 명칭들 가운데 ‘아가씨, 누이, 시누이’ 등과 같은 여성 친족 호칭어를 어원적인 측면에서 분석·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 호칭어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워 보인다.

20세기 90년대에 들어 한국어의 여성 호칭어에 대한 연구는 형태와 의미론적 면에서는 물론 사회언어학적 관점 또는 그 밖의 면 등에서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어휘의 형태적인 면을 살펴보면, 구현정(1995)에서는 ‘사장, 여사장’이나 ‘남자과출부, 과출부’ 등에서의와 같이 ‘남-, 여-’ 접두사가 붙는 현상을 유표와 무표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분류하였다. 어휘의 의미적 연구를 살펴보면, 한운정(2002)에서는 ‘아줌마’, ‘아가씨’, ‘언니’의 의미 변화를 흥미롭게 논의하였다. 순수한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살펴보면, 강희숙(2000)에서는 서비스 업종에서 손님과 종업원이라는 사회적 신분하에서 사용하는 호칭어를 사회언어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호칭어의 유형 및 현상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강현자(2005)에서는 한국어 호칭의 선택 기준에 따라 호칭어를 분류하였으며, 호칭어에서도 여성성을 띤 어휘로 ‘할머니’, ‘아주머니’, ‘사모님’, ‘아가씨’, ‘언니’ 등 통칭으로 사용되는 친족 호칭어가 있고, 이름 뒤에 오는 ‘양’이나 최근에 여성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자기’도 청자가 여성임을 뜻하는 것임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방언에 나타나는 여성 호칭어를 다룬 논문도 보이는데, 강희숙 외(2007)에서는 전남 방언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여성 호칭어에 어떤 변종들이 분포되었는가를 찾아내어 그 특질을 밝혔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여성 호칭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성 호칭어와 성차별(女性稱謂語和性別歧視), 여성 호칭어의 결여와 범화(女性稱謂語缺位與汎化), 여성 호칭문화 연구(女性稱謂語的文化探索)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⁹⁾

8) 예를 들면, 친족어 중의 여성에 대한 호칭어는 ‘안해, 마노라(왕, 상전>처[18c], 지어미, 어미, 할머니, 할머니, 누이, 민며느리)’ 등이 있다(유창돈, 1966:10~27).

여성 호칭어와 성차별에 관한 연구로는 吳曉君(2006), 朱禮金(2007), 張博(2009), 梁軼靈(2009), 唐雪琮, 林婕(2009) 등을 들 수 있다. 吳曉君(2006)에서는 호칭어를 친족 호칭어, 사회 호칭어, 의사 친족 호칭어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사회생활에서의 남존여비 현상을 살펴보고 있다. 張博(2009)에서는 여성에 대한 비칭(侮稱)을 통하여 중국 사회의 여성의 지위의 낮음을 제시하였다. 唐雪琮, 林婕(2009)에서는 중국어와 영어의 여성 호칭어의 대조를 통하여 여성 호칭어의 성차별 현상을 밝혔다.

陳建民(1990)에서는 현대 중국어 여성 호칭어를 부부 사이, 동년배의 아내, 선배의 아내, 선생의 아내, 미혼 여성, 이성 친구, 아파트에 사는 여성 등으로 구분하여 현대 중국 여성 호칭어의 결여와 범화문제를 제시하였다. 郝媛媛(2005)에서는 중국의 현대 사회에서의 여성 호칭어의 결여 원인을 찾아내고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다. 李丹弟(2006)에서는 현재 중국의 젊은 여성층에서 부르는 호칭어 '小姐(아가씨)'를 대상으로 중국어 호칭어의 어려움을 논의하였다. 楊先立(2008)에서는 여성 호칭어 '小姐(아가씨)'의 의미 변화의 원인에 대하여 다루었다.

여성 호칭 문화 연구는 주로 역사적 각도에서 본 중국 여성 호칭어의 발전과 여성 사회적 위치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대표적 연구로 張辰昫(2007)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 호칭어의 변화로부터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살펴보고 있다. 그 외 宋燕(2001)에서는 여성 호칭어 연구를 통하여 중국 여성 호칭어의 사회적 계층성을 밝히고 있으며, 劉立曄(2005)에서는 여성 호칭어를 통해 중국의 문화 풍속을 살펴보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호칭어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두 나라 언어를 대상으로 대조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한·중 호칭어를 체계적으로 대조한 연구들로는 이재승(1994), 김현태(2001), 유예화(2004), 고륙양(2007) 등이 있다. 이재승(1994)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호칭어를 친족 간의 호칭어와 비친족 간의 호칭어로 구분하고, 사용에 따른 사회적 요인에 대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김현태(2001)에서는 1차적으로 중국어의 호칭어를 친족 호칭어와 사회 호칭어로 분류하고 2차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호칭어를 종류별로 대조하였다. 유예화(2004)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호칭을 사회 호칭과 친족 호칭으로 분류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으며, 고륙양(2007)에서는 유예

9) 중국어에서 '칭위(稱謂)'란 용어는 한국어의 호칭어와 지칭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호칭어와 지칭어 개념은 각각 '면칭(面稱)'과 '배칭(背稱)'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호칭어는 지칭과 호칭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다. 본고 제2장 내용 참조.

화(2004)와 같은 분류 방법으로 한국과 중국 호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있는데 다른 점이라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난 사회적 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한편, 호칭어에서 한 유형만을 다룬 대조적 연구를 살펴보면, 류려나(2005)에서는 비친족 호칭어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한국과 중국의 호칭어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에 공존하고 있는 한자어 호칭어에 대한 의미나 사용 환경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호호칭(2006)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의사 친족 호칭어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나라의 의사 친족 호칭어에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고 있다. 또한, 왕혜방(2009)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비친족 호칭어에 대해 대조 분석하였고, 원운하(2008)에서는 한·중 사회 호칭어에 나타나는 어휘의 의미와 사용원칙을 논의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연구는 단순하게 호칭어를 친족 호칭어와 비친족 호칭어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데 머물렀다. 여성 호칭어에 관한 대조 연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1.3. 연구의 전개

본 연구에서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여성 호칭어를 대조·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두 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밝히고자 하는바, 연구 내용을 장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먼저 여성 호칭어의 개념 및 범위를 살펴보고, 여성 호칭어를 여성 친족 호칭어와 여성 비친족 호칭어로 분류하여 한·중 양국의 여성 호칭어에 대해 대조하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여성 호칭어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조 분석을 통하여 현대 한국과 중국의 사회생활 중 사용하고 있는 여성 호칭어에서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여성 호칭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난 원인을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지어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은 본 연구의 결론 부분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또한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II. 여성 호칭어의 개념과 유형

2.1. 여성 호칭어의 개념 및 범위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호칭어란 화자가 대화의 상대방과 말을 하는 동안에 그 상대방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어구' 또는 '표현들'이다.¹⁰⁾ 이와 같은 호칭어의 개념 및 범위는 개별 언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어에서 '호칭어'라는 용어는 사용할 때 '칭호', '지칭어', '호출어' 등 용어와 큰 차이 없이 많은 혼란이 있다. 지칭어란 화자가 대화 도중 가리켜 일컫는 대상을 지시하는 말로서, 가령 "이건 제 아우의 사진입니다."에서 '아우'와 같은 형식을 말한다. 한편, 호출어란 "애, 어디 가니?"나, "여보, 나 좀 봐요." 하는 식의 발화에서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하는 '애, 여보' 등을 가리킨다(강희숙, 2007:157). 본고에 정의되는 호칭어는 지칭어나 호출어와 엄밀한 의미로 구별이 되는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호칭어'라는 용어 대신 '칭위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칭위(稱謂, appellation)'란 인간이 친족관계 또는 타인과의 상호관계, 그리고 신분, 직업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얻은 명칭을 의미한다.¹¹⁾ '칭위'는 다시 면칭(面稱)과 배칭(背稱)으로 구분되는데, '면칭'은 화자와 직면(直面)할 때 부르는 말로 문장 성분에 있어서 독립적인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배칭'은 화자가 반드시 대화 장면에서 있지 않아도 사용되는 칭위로서 주로 가리켜 일컫는 역할을 한다(고륙양, 2007:19). 따라서 한국어의 호칭어는 중국어의 칭위어(이하 호칭어라고 함)의 면칭과 대응할 수 있다.

호칭어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성별에 따라 각각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¹²⁾ 남녀 성별에 따라 다른 호칭어를 써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여성 호칭어는 대화의 상대방이 여성인 상황에서 그 여성을 직접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어구', 또는 '표현들' 즉 대화할 때 여성 청자를 직접 부르는 호칭으로 정의하였다.

10) 류재봉(1997:18)에서는 '호칭어'는 상대를 부르는 말, 황보나영(1993:24)에서는 호칭어는 화자가 청자를 부르는 말, 이익섭(2000:173)에서는 호칭은 상대방을 그 면전에서 직접 지시하는 형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1) 『現代漢語詞典』(1990). 人們由于親屬和其他方面的相互關係, 以及由于身份, 職業等等而得來的名稱.

12) 왕혜방(2009:42~43), 고륙양(2007:47) 참조.

2.2. 여성 호칭어의 유형 및 특징

한국과 중국은 전통사회에서 유교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¹³⁾ 한 나라의 문화는 언어에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언어 또한 문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게 마련이다(유예화, 2004). 그렇다면, 유교사상을 가진 전통사회에서 호칭어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가? 우선, 전통사회 대가족제도하에서 가족성원은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였기 때문에 친족 호칭어의 유형별 양상 또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봉건제도하에서 분화된 사회계급에 따라 호칭어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통 사회의 봉건적 사상들은 오늘날에도 두 나라 호칭어의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1. 여성 호칭어의 유형

2.2.1.1. 한국어 여성 호칭어의 유형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호칭어 연구들에서는 한국어 호칭어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

이재승(1994)에서는 한국어의 호칭어를 ①친족들 간에 사용하는 호칭어(부계 친족 호칭어, 모계 친족 호칭어, 부부계 친족 호칭어), ②혈연관계를 떠나서 직장이나 사회에서 비친족 간의 호칭어(비친족 호칭어) 2가지로 분류하였다. 비친족 호칭어를 다시 의사 친족 호칭어,¹⁴⁾ 존칭과 겸칭,¹⁵⁾ 직무(직업) 호칭어, 성명 호칭어로 나누었다.

류재봉(1997)에서는 한국어의 호칭어를 ①일가칭(一家稱), ②사회칭(社會稱), ③사후칭(死後稱) 3가지로 분류하였다. 일가칭은 일가와 척분간에 서로를 일컫는 말, 사회칭은 사회생활의 대인 관계에서 일컫는 말, 사후칭은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13) 한국은 일찍부터 유교가 유입되었다. 유교는 한반도에서 몇 천 년의 발전역사를 가진 철학사상으로 중국 유교에 못지않게 한국사회에 깊은 영향을 가져다주었다(고륙양, 2007:44).

14) 여기서 일컫는 의사 친족 호칭어는 실제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부르는 말(이재승, 1994).

15) 한국어 호칭어에서 존칭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님'자로, 상사를 부르거나 선생님을 부를 때 또한 친족 간의 호칭어에도 사용되어 상대방을 높이 받드는 존댓말로 쓰인다(이재승, 1994).

정의하였다.¹⁶⁾

박정운(1997)에서는 한국어의 호칭어를 ①이름 호칭어, ②직함 호칭어, ③2인칭 대명사 호칭어, ④친족어 호칭어, ⑤통칭적 호칭어,¹⁷⁾ ⑥기타 호칭어(별명, 호나 칭자 출신 지역명을 통한 호칭어, 여보세요, 야 등), ⑦영형 호칭어, ⑧친근 호칭 등 8가지로 분류되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호칭어를 유형화해 본 결과 학자에 따라, 분류의 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박정운(1997)에서는 영형호칭어(일반적으로 호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화자가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 호칭어의 사용을 피하고 호칭어의 사용 없이 청자의 관심을 화자 쪽으로 유도시키는 경우를 여기서는 ‘영형 호칭어’라고 부름)와 친근 호칭어(두 대화자 사이가 충분히 친해졌을 때, 윗사람에게 직접 이름으로 부름)는 따로 분류하였다.¹⁸⁾

본고에서는 세분화하기보다는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된 한국어의 여성 호칭어는 이재승(1994)과 박정운(1997)을 참고하여, 여성 호칭어는 여성 친족 호칭어와 여성 비친족 호칭어로 나누며, 여성 친족 호칭어는 부계 여성 친족 호칭어, 모계 여성 친족 호칭어, 부부계 여성 친족 호칭어를, 여성 비친족 호칭어는 다시 여성 이름 호칭어, 여성 직함 호칭어, 여성 대명사 호칭어, 여성 통칭 호칭어,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 기타 여성 호칭어로 분류하기로 한다.

2.2.1.2. 중국어 여성 호칭어의 유형

한편, 중국어를 대상으로 한 호칭어 연구에서는 중국어 호칭어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다.

진송잠(陳松岑, 1985)에서는 중국어 호칭어를 ①친척 호칭어, ②직업 호칭어, ③직무 호칭어, ④통칭 호칭어, ⑤멸칭(蔑稱) 및 천칭(賤稱) 호칭어,¹⁹⁾ ⑥성명 호칭어로 분류하였다.

호효칭(胡曉清, 2006)에서는 중국어 호칭어를 ①친족 호칭어, ②통칭형 호칭어,

16) 호칭어의 개념에 따라 사후칭은 본고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17) 통칭 호칭어는 다시 직함 호칭어들이 일반화되어 사용되는 호칭어와 친족어들이 일반화되어 사용되는 호칭어로 나눈다. 본고에서 일컫는 통칭 호칭어와 내용이 다르다.

18) 본고에서는 이 부분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여성 비친족 호칭어의 유형은 영형 호칭어와 친근 호칭을 제외한 6가지로 나눌 것이다.

19) 멸칭(蔑稱)은 상대방에게 알잡아 부르는 말.

천칭(賤稱) 또한 비칭은 자기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여주려 쓰는 말.

③직무/직칭/직업형 호칭어,²⁰⁾ ④성명형 호칭어, ⑤친족 호칭어 범화형(汎化型)(이하 의사 친족 호칭어라고 함)²¹⁾ ⑥영형 사회 호칭어로 분류되었다.

고륙양(高陸洋, 2007)에서는 중국어 호칭어를 ①친족 호칭어(부계 친족 호칭어, 모계 친족 호칭어, 부부계 친족 호칭어), ②사회 호칭어(이름형, 직함/직업형, 통칭형, 대체형, 기타), ③의사 친족 호칭어 3가지로 분류되었다. 대체형 호칭어는 상대방을 주의만을 일으키는 호칭어 (가령, '저기요[喂]' 등) 형태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한국어와 중국어 여성 호칭어의 유형들을 대조해 보면, 한·중 여성 호칭어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어 여성 호칭어의 유형들이 한국어 여성 호칭어에도 존재한다. 다만, 한국어의 여성 비친족 호칭어는 6가지 유형으로, 중국어의 여성 비친족 호칭어는 고륙양의 분류 방법을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누며, 한국어 기타 호칭어 가운데 데호, 호, 지역명형 여성 호칭어를 중국어에서는 없다.

한국어와 중국어 여성 호칭어 유형을 바탕으로 본고에서 여성 호칭어는 크게 여성 친족 호칭어와 여성 비친족 호칭어로 나누며, 여성 친족 호칭어는 다시 ①부계 여성 친족 호칭어, ②모계 여성 친족 호칭어, ③부부계 여성 친족 호칭어, 여성 비친족 호칭어는 ①여성 이름 호칭어, ②여성 직함 호칭어, ③여성 대명사 호칭어, ④여성 통칭 호칭어, ⑤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 ⑥기타 여성 호칭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2.2. 여성 호칭어의 유형별 특징

2.2.2.1. 여성 친족 호칭어

여성 친족 호칭어란 친족 여성에게 주로 사용되는 호칭어이다.²²⁾ 가령, 한국어의 어머니, 동생, 고모, 제수씨 등이나 중국어의 媽媽(어머니), 姐姐(언니/누나), 姑姑(고모) 등이 그 예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친족 관계는 조선 중기 이전에는 모계(母系) 또는 처계(妻系)

20) 직무/직칭/직업형 호칭어는 본고에서 다를 직함 호칭어에 해당한다.

21) 친족 호칭어 범화형(汎化型)은 본고에서 다를 의사 친족 호칭어에 해당한다.

22) 친족호칭어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경우, 최재식(1991), 조항범(1996) 등이 있으며, 중국의 경우, 郭錦桴(1993), 陳松岑(1985) 등이 있다. 본고에서 친족의 범위는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가 부계(父系)와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친족 간의 호칭어도 비부계적(非父系的) 특징이 나타났다. 이와 달리 중국 고대사회의 친족 체계는 동조동종(同祖同宗)의 종친과 여계(女系) 혈통의 외친, 그리고 부부간의 친족관계로 나눌 수 있다.²³⁾

조선 중기 이후 중국의 문물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친족 관계는 점차 부계 친족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한국 고유의 비부계적 친족 체계는 완전히 중국의 부계 중심 친족 체계로 대체되어 친족 호칭어 체계도 부계친족을 강조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18세기 이후부터 한국의 친족 관계는 중국과 비슷하게 되었다(최재석, 1991:6~7).

오늘날 법적으로 제정된 한국의 친족 체계는 민법 제777조에 의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3가지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친족원이 대체로 부계, 모계, 인척의 세 범주로 나누어지고, 이에 따라 한국의 친족 명칭도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지게 된다.²⁴⁾

- (2) 가. 부계는 에고(ego: 친족 관계를 따지는데 중심이 되는 사람)의 부계 친족 및 그들의 배우자를 포함한다.²⁵⁾
 - 나. 모계는 에고의 어머니의 부계 친족과 그 배우자를 포함하고 외족이라고 한다.
 - 다. 인척 또한 부부계는 에고의 배우자의 부계 친족과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특히 인척은 에고의 성(性)에 따라 그 이름이 달라 남성 에고의 경우에는 처족 혹은 처가라고 하고 여성 에고의 경우는 시가라고 한다.²⁶⁾

그리하여 한국의 친족 명칭은 대체 부계 친족 명칭, 모계 친족 명칭과 부부계 친

23) 역대 종친에 대한 범위는 위로 고조부에서 아래로는 현손(玄孫)까지 9족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외친의 친족범위는 보통 위아래로 2세대에 그쳤으니 즉 위로는 모친의 부모, 방계로 모친의 형제자매, 아래로 모친의 형제자매의 자식들을 포함시킨다. 부부간의 친족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부모·형제사이·남편과 아내의 자매사이 등을 포함하고 있다(유예화, 2004).

24) 한국의 친족 명칭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종류의 저작이 있다. 왕한석(2005:135)에서 재인용.

25) 이를 친족 혹은 부당이라고도 하며, '혼입한 여자 및 혼출한 여자가 모두 소속된다'(Lee and Harvey, 1973:31~32). 왕한석(2005:135)에서 재인용.

26) 본고에서 인척은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와 아내가 남편의 일부 부계 여성 친족을 부를 때 사용되는 호칭어를 첨가하여 부부계란 개념하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족 명칭으로 구분한다.

한편, 현재 중국에서 친족은 대개 ‘본인과 혈연관계가 있고 또한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을²⁷⁾ 가리킨다. 즉 중국의 친족 체계는 혈친(血親)과 인친(姻親)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한국어의 친족 호칭어와 비교 분석하는 데 편리함을 위하여 중국어 친족 호칭어를 고찰할 때도 한국어와 비슷한 구조, 즉 부계, 모계, 부부계 3가지로 나누며,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 2대에 국한하여 가정에서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여성 호칭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2.2.2.2. 여성 비친족 호칭어

여성 비친족 호칭어란 직장이나 사회에서 비친족 여성에게 사용되는 호칭어이다. 이러한 여성 비친족 호칭어는 다시 여성 이름 호칭어, 여성 직함 호칭어, 여성 대명사 호칭어, 여성 통칭 호칭어,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와 기타 여성 호칭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성 이름 호칭어는 여성에게 쓰이는 이름이 호칭어로 사용되는 형태이다. 이름 호칭어로 사용되는 것은 언어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언어에 따라 사용에 따른 제약이나 세부적인 특성이 다를 수 있다(박정운, 1997:508). 한국어 여성 이름 호칭어는 보통 호격조사 ‘-아, -야’, 또는 높임을 나타내는 ‘-씨, -양’ 등과 같은 첨가 성분이 이름 뒤에 붙은 형태로 사용된다. 가령, 김하늘 씨, 강자야, 지영 양 등 호칭 형식은 보편적이다. 중국어에서는 접두사 ‘-大(대), -小(소)’ 등 연령적 차이가 나타내는 성분이 이름을 붙여서 사용된다. 예컨대, 小劉(소류), 小張(소장) 등이 있다.

여성 직함 호칭어란 청자 여성이 말하는 직함을 그 여성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어 여성 직함 호칭어는 ‘직함+(님)’과 ‘성+(이름)+직함+(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교수님, 간호사 등이 있다. 중국어의 직함 호칭어는 한국어보다 더 자세히 분류되어 주로 직무(職務), 직칭(職稱), 직업(職業)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면, 服務員(복무원), 高主任(고 주임), 金部長(김 부장), 李教授(이 교수) 등이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 여성 직함 호칭어의 사용은 상하관계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특히 한국어에서 청자가 윗사람인 경우에는 반드시 존대 접미사 ‘-님’이 붙은 직함 호칭을 써야 하지만, 윗사람은 어떤 유형의 직함 호칭어도 사용할 수 있

27) 郭錦桴(1993:352), 『漢語與中國傳統文化』, 中國人民大學出版社。
親屬稱謂是具有血統與婚姻連鎖關係的親屬之間的稱謂。

다.

여성 대명사 호칭어는 말 그대로 여성 청자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여성 2인칭 단수 형식 대명사를 가리킨다. 예컨대, 자네, 당신, 你(니) 등이 있다. 중국어의 2인칭 대명사보다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가 형태상으로 다양하며, 그 구성 요소가 몇 개인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²⁸⁾ 한국어 여성 2인칭 대명사형 호칭어의 사용에는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 친소관계와 성별에 따른 제약이 있다. 예를 들면, 교수가 대학원 제자에게는 '자네'라고 부를 수 있지만, 제자와 비슷한 연배에 있는 친하지 않는 기타 대학원생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어 여성 2인칭 호칭어에서 이러한 제약이 없다.

여성 통칭 호칭어는 여성 청자에게 높이거나,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 특정한 명사들을 호칭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 통칭 호칭어를 명사형 호칭어라고 하기도 한다.²⁹⁾ 한국어 여성 통칭 호칭어의 형태는 '선생님, 사모님, 학생' 등이 있으며, 중국어 여성 통칭 호칭어의 형태는 주로 '同志(동무), 師傅(사부), 女士(여사), 夫人(부인), 小姐(아가씨), 同學(동학)' 등이 있다.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는 여성 친족 호칭어가 일반적인 호칭어로 대응되는 형식이다. 학자에 따라 의사 친족 호칭어를 '친족어 대응형', '매개 친족 호칭어' 등이 라고 부를 수도 있다.³⁰⁾ 현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의사 친족 호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가령, 한국어에서 '언니', '이모', '아줌마' 등 친족 호칭어의 원형으로 적용하는 형식과 중국어에서 '高阿姨(고 이모)', '金大姐(김 언니)' 등 앞에 본성이나 남편의 성을 붙여서 사용하는 형식이다.

박정운(1997)에 따라 기타 호칭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호칭어 형태이다. 여성 청자의 '출신 지역명'이나 '남편의 성'에 각각 접미사 '-댁, -실, -집' 등이 결합된 호칭어는 한국어 기타 여성 호칭어의 대표적인 형태이다.³¹⁾ 예를 들면, '명성댁', '이실이' 등이 있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젊은 여성에게 사용하는 비친족 호

28) 구체적인 내용은 3.2.2.절에서 제시할 것이다. 보고에서는 한국 여성 2인칭 단수 대명사형 호칭어는 '너, 자네, 자기, 당신' 등 형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에서 2인칭 단수 대명사형 호칭어는 '你'와 '您' 2가지 밖에 없다.

29) 박갑수(1989)에서 통칭 호칭어를 명사형 호칭어라고 논의하고 있다. 박정운(1997)에 따라 통칭 호칭어는 2가지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직함 호칭어가 일반화되어 사용되는 호칭어이며, 또 하나는 친족 호칭어가 일반화되어 통칭어로 사용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직함호칭어의 통칭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30) 박정운(1997)에서는 '매개 친족 호칭어'라고 보고 있고, 박갑수(1989)에서 '친족어 대응형'이라고 보고 있다.

31) 현대 중국어에서 여성 청자의 '출신 지역명' 혹은 '남편의 성'에 각각 접미사 '-댁, -실, -집' 등을 이용하는 호칭어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칭어가 많이 나타난다. 예컨대, '美女(미녀)' '靚妹(미녀의 방언 형식)', 'MM(미녀)' 등 형태가 있다. 이러한 여성 호칭어들이 보통 통신언어와 서비스업에서 많이 사용된다.

III. 한·중 여성 호칭어 유형별 대조

3.1. 한·중 여성 친족 호칭어

3.1.1. 한·중 여성 친족 호칭어의 대조

앞에서 제시한 대로, 여성 친족 호칭어의 유형은 부계, 모계와 부부계로 구분할 수 있다. 맨 먼저, 두 언어에서의 부계 여성 친족 호칭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³²⁾

<표 1> 한·중 부계 여성 친족 호칭어³³⁾

호칭 대상	화자 성별	한국어	중국어
조모	남,여	할머니, 할머니님	奶奶(할머니)
모	남,여	엄마, 어머니(어머님)	媽/媽媽(엄마)
손위 누이/언니	남	누나, 누님	姐/姐姐(언니/누나)
	여	언니/언니, 형님	
여동생	남,여	이름, 동생/이름, 동생, ○ ○어멈(엄마)(결혼 후)	이름/애칭, 妹妹(여동생)
딸	남,여	이름/이름, (○○)어미(어 멈)(결혼 후)	이름/애칭, 閨女(딸애야)
며느리	남,여	아가, 새아가, (○○)어미 (어멈), 애야	이름, ○○他媽(○○엄마)
형/오라버 니의 아내	남	형수(님), 아주머니(님)	嫂子(형님)
	여	언니, 새언니, 형님	
남동생의 아내	남	제수씨, 계수씨	이름, 弟妹(제수씨/올케)
	여	올케, ○○엄마, ○○어멈	
손녀	남,여	이름/이름, (○○)어미(어	이름/애칭, 孫女(손녀)

32) 한국의 여성 친족 호칭어의 사용은 조선일보사와 국립국어연구원의 『우리말의 예절, 상』(1996)을 참고하였고, 중국어는 고륙양(2007)의 『한·중 호칭어의 대조 연구』와 호칭어에 관한 학술논문을 참고하였다. 대조적인 논의를 위하여 친족 호칭어를 유형별로 위와 같이 표로 제시하였다.

33) 중, 재중, 삼중 형제자매의 경우, 중형제는 4촌, 재중형제는 6촌, 삼중형제는 8촌이며 그들에 대한 호칭어는 친형제를 부르는 말과 같다. 또한, 그들의 배우자의 호칭어도 친형제의 경우와 비슷하다. 고륙양(2007) 참조.

		멈)(결혼 후)	
아버지의 형수	남,여	큰어머니(님)	伯母/大娘(큰어머니)
아버지의 제수	남,여	작은어머니, 숙모(님)	孀子/孀儿(숙모)
아버지의 누이/여동 생	남,여	고모(님), 아주머니(님)	姑姑/姑媽(고모)
중 손위 누 이/언니	남	누나, 누님	姐/姐姐(언니/누나)
	여	언니	
중 여동생	남,여	이름, 동생/이름, 동생, ○ ○어멈(엄마)(결혼 후)	이름/애칭, 妹妹(여동생)
조카딸	남,여	이름/이름, 조카, (○○)어 미(어멈)(결혼 후)	이름/애칭, 남자 형제의 딸: 侄 女(조카딸), 여자 형제의 딸: 外甥女(생질녀)
중 형/오라버 니의 아내	남	형수(님), 아주머니(님)	嫂子(형수)
중 남동생 의 아내	남	제수씨, 계수씨	이름, 弟妹(제수씨/올케)
	여	올케, ○○엄마, ○○어멈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부계 여성 친족 호칭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부계 여성 친족 호칭어는 기본형 이외에는 호칭어의 뒤에 ‘-님’이 붙은 높임형을 사용한다. 가령, 누님, 어머니, 고모님, 할머니 등이 있다.

둘째, 한국어 여성 친족 호칭어는 화자의 성별에 따라 같은 대상에게도 다른 형태의 호칭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손위 여자 형제에게는, 남성 화자는 ‘누나’라고 부르고, 여성 화자는 ‘언니’라고 부른다.

셋째, 한국어에서 손아래 여성 청자에게 결혼하기 전에는 보통 이름으로 부르고, 결혼 후에는 이름도 부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청자의 자식의 이름에 ‘어멈(어미)’ 등을 붙여서 부른다. 그 예로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딸에게 이름으로 부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 결혼한 후에는 외손자/외손녀의 이름에 ‘어멈(어미)’를 붙여서 사용한다.

넷째, 종/외종/이종자매에게도 친자매처럼 부른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에서도

존재한다.

다섯째, 중국어 여성 부계 친족 호칭어에서는 손아래 여성 청자에게 거의 이름으로 부른다. 가령, 남동생의 아내에게 직접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여섯째, 중국어 여성 부계 친족 호칭어에서 화자는 남자 형제의 딸에게 '侄女(조카딸)'로 부르고, 여자 형제의 딸에게 '外甥女(생질녀)'로 부른다.

다음, 두 언어에서의 모계 여성 친족 호칭어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한·중 모계 여성 친족 호칭어

호칭 대상	화자 성별	한국어	중국어
외조모	남,여	외할머니(님), 할머니(님)	姥姥/外婆(외할머니)
어머니의 자매	남,여	이모(님), 이숙모(님), 아주머니(님)	姨/姨媽(이모)
외삼촌의 아내	남,여	외숙모(님), 아주머니(님)	舅媽(숙모)
외손녀	남,여	이름/이름, (○○)어미(어멈)(결혼 후)	이름/애칭, 外孫女(외손녀)
외종, 이종 손위 누이 언니	남	누나, 누님	姐姐/姐(누나/언니)
	여	언니	
외종, 이종 여동생	남,여	이름, 동생/이름, 동생, ○○어멈(엄마)(결혼 후)	이름/애칭, 妹妹(여동생)
외종, 이종 조카딸	남,여	이름	이름/애칭
외종, 이종 형/오라버니의 아내	남	형수(님), 아주머니(님)	嫂子(형수)
외종, 이종 남동생의 아내	남	제수씨, 제수님	이름, 弟妹(제수씨/올케)
	여	올케, ○○엄마	

<표 2>를 보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모계 여성 친족 호칭어의 특징과 <표 1>에서 부계 여성 호칭어의 특징은 거의 비슷하다. 다만, 한국어와 중국어의 모계 친족 호칭어는 명칭 앞에 '외(外)'와 같은 글자를 첨가하는 방식이나 아예 다른 호칭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 부계 친족 호칭어와 차별화한다. 예컨대, '할머니-

외할머니, 고모-이모, 奶奶(할머니)-姥姥(외할머니)' 등이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부계 여성 친족 호칭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한·중 부부계 여성 친족 호칭어

호칭 대상	화자 성별	한국어	중국어
아내의 어머니	남	장모님, 어머(니)님	媽/媽媽(어머니)
아내의 여동생	남	처제	이름
아내의 언니	남	처형	姐/姐姐(누나)
손위 처남의 택	남	아주머니(님), ○○어머니	嫂子(형수)
손아래 처남의 택	남	처남의 택, ○○어머니	이름
시어머니	여	어머니(님)	媽/媽媽(어머니)
손위 시누이	여	형님, 큰누님, 큰아가씨(결혼 후)	姐/姐姐(언니)
손아래 시누이	여	아가씨, 작은아가씨(결혼 후)	이름
시숙의 아내	여	형님	嫂子(형님)
시동생의 아내	여	동서, 아우님	이름
아내	남	이름+씨, 여보, 여봐요, ○○어머니, ○○엄마...	이름/애칭, 老婆(여보), ○○他媽(○○엄마), 老伴儿(노반)...

위의 표에 제시한 한·중 부부계 여성 호칭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여성 부부계 호칭어에서는 손아래 시누이에게 높이어 이르는 말 '아가씨'로 부른다.

둘째, 한국어 여성 부부계 호칭어에서는 이름 호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한국어 여성 부부계 호칭어에서는 아내의 어머니에게 '장모님'을 부른다.

이상의 <표 1>~<표 3>에서는, 부계, 모계, 부부계의 3분법으로 각각 나누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의 여성 친족 호칭어를 대조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3분법으로 분류된 친족 호칭어의 체계는 두 나라의 여성 친족 호칭어의 특징을 분명

하게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위의 표들을 토대로 두 언어에 나타난 여성 친족 호칭어의 사용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3.1.1.1. 한·중 여성 친족 호칭어의 유사점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8세기 이후부터 한국 친족 체계의 범위는 중국과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한·중 두 나라의 친족 호칭어도 유사점이 많다. 따라서 한·중 여성 친족 호칭어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외', '外' 등과 같은 형태를 첨가하는 방식이나 아예 다른 호칭어를 사용함으로써 모계 호칭어를 부계 호칭어와 차별화하는바, 다음은 부계와 모계에 따른 여성 호칭어를 정리한 것이다(고륙양, 2007:41).

<표 4> 부계와 모계에 따른 여성 호칭어

체 계	호칭 대상	화자 성별	한국어	중국어
부 계	조모	남,여	할머니, 할머니님	奶奶(할머니)
	아버지의 제수	남,여	작은어머니, 숙모(님)	孀子/孀儿(숙모)
모 계	외조모	남,여	외할머니(님), 할머니(님)	姥姥/外婆(외할머니)
	외삼촌의 아내	남,여	외숙모(님), 아주머니(님)	舅媽(외숙모)

여기에서 보듯이, 두 언어에서 나타나는 부계와 모계의 여성 호칭어를 대조해 보면, 한국어에서의 여성 모계 친족 호칭어는 명칭 앞에 '외(外)'를 첨가하여 사용한 반면, 중국어에서의 여성 모계 친족 호칭어는 다른 호칭어를 사용함으로써 부계 친족 호칭어와 차별화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아버지의 어머니는 '할머니', 어머니의 어머니는 '외할머니'라고 부르고, 중국어에서 아버지의 어머니는 '奶奶(할머니)', 어머니의 어머니는 '姥姥(외할머니)'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중국어에서 어머니 동생의 아내는 아버지 동생의 아내와는 달리 '舅媽(외숙모)'라고 호칭하고, 한국

어에서 아버지 동생의 아내는 ‘숙모’에 ‘외’를 첨가하여 ‘외숙모’라고 부른다.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외’의 첨가 현상은 남성 중심의 가족 관념에서 친족 계통에 대한 차별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중국어에서는 전혀 다른 호칭어를 씀으로써 부계 중심이나 남성 중심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나 근래에 한국에서도 상대방을 호칭할 때 대개 ‘외’를 첨가하지 않고 ‘외할머니’에게도 ‘할머니’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중국어에서는 부계와 모계의 차별 현상은 잘 나타나고 있지만, 친족 호칭어로서의 남성 중심의 사상을 밝혀낼 수 없다. 이와 반대로 한국어에서는 호칭어 사용에서 남성 중심 사상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부계와 모계의 차별 현상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종자매, 외종자매와 이종자매에게 친자매의 호칭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친자매, 종자매, 외종자매에게 사용하는 호칭어이다.

<표 5> 친자매/종자매/외종자매에게 사용하는 호칭어

호칭 대상	화자 성별	한국어	중국어
손위 누이/언니	남	누나, 누님	姐/姐姐(언니/누나)
	여	언니/언니, 형님	
종 손위 누이/언니	남	누나, 누님	姐/姐姐(언니/누나)
	여	언니/언니, 형님	
외종, 이종 손위 누이 언니	남	누나, 누님	姐/姐姐(언니/누나)
	여	언니/언니, 형님	
여동생	남,여	이름, 동생/이름, 동생, ○ ○어멈(엄마)(결혼 후)	이름/애칭, 妹妹(여동생)
종 여동생	남,여	이름, 동생/이름, 동생, ○ ○어멈(엄마)(결혼 후)	이름/애칭, 妹妹(여동생)

<표 5>에서와 같이 종, 외종과 이종 손위 언니에게 친언니에게 사용하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여성 친족 호칭어를 사용할 때, 항렬 요인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한국어에서 대개 손윗사람에게 친족 호칭어의 높임형을 사용하고, 청자가 손아랫사람일 때는 직접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중국어에서도 손아랫사람에게 이름 호칭을 많

이 사용하지만, 손윗사람에게는 사용하기 부적절하다. 다음은 어머니와 친자매에게 사용하는 호칭어들이다.

<표 6> 어머니/친자매에게 사용하는 호칭어

호칭 대상	화자 성별	한국어	중국어
모	남,여	엄마, 어머니(어머님)	媽/媽媽(엄마)
손위	남	누나, 누님	姐/姐姐(언니/누나)
누이/언니	여	언니/언니, 형님	
여동생	남,여	이름, 동생/이름, 동생, ○ ○어멈(엄마)(결혼 후)	이름/애칭, 妹妹(여동생)

<표 6>을 보면, 한국어에서는 항렬이 높은 ‘어머니’에게 존대하는 후치 성분 ‘-님’을 붙여서 사용하고, 중국어에서는 항렬이 높은 여자 형제에게 ‘姐/姐姐(언니/누나)’로 부르며, 항렬이 낮은 여자 형제에게 직접 ‘이름’으로 부른다.³⁴⁾

넷째, 매개 호칭어를 사용한다. 매개 호칭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조 명칭을 이용하고 간접적으로 부르는 호칭어이며,³⁵⁾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청자 집안의 대표적인 아이를 대신하여 호칭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손자 혹은 손녀의 이름 뒤에 ‘-엄마(어미)’를 붙여 사용한다. 다른 하나는 화자가 자신을 매개체와 동일시하여 매개체가 사용하는 친족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한국어에서 시누이와 올케에게 각각 ‘고모’와 ‘외숙모’라고 부를 수 있다. 다음, 며느리와 아내에게 사용하는 매개 호칭어는 다음과 같다.

<표 7> 며느리/아내에게 사용하는 호칭어

호칭 대상	화자 성별	한국어	중국어
며느리	남,여	아가, 새아기, (○○)어미 (어멈), 애야	이름, ○○他媽(○○엄마)
아내	남	이름+씨, 여보, 여봐요, ○	이름/애칭, 老婆(여보), ○○他

34) 연령 차이가 많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자기보다 한 살 많은 언니에게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별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

35) 중국어에서는 ‘종타호칭어(從他稱謂語)’라고 부른다(왕혜방, 2009:50).

	○어머니, ○○엄마...	媽(○○엄마), 老伴儿(노반)...
--	---------------	---------------------

<표 7>과 같이 한국어의 ‘○○어머니, ○○엄마’와 중국어의 ‘○○他媽(○○엄마)’ 등과 같은 호칭 형식은 바로 매개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여성 친족 호칭의 유형과 용법에 서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은 공통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2장에서 언급한 대로 역사적으로 두 나라가 비슷한 사회윤리를³⁶⁾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중 두 나라가 어떤 공통적인 사회윤리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하(夏)나라 때부터 가족 성원에 대하여 부계 중심으로 세대구분을 하기 시작하였다.³⁷⁾ 중국이 옛날부터 농업을 위주로 하는 경제활동을 사회경제의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공간이 넓지 않았고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생존방식과 남성 중심의 관리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봉건 사회에 있어서 가장의 권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질서가 엄격하게 유지되었다.

도덕관념과 윤리 사상이 중심인 한·중 두 나라의 유교사상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바로 맹자의 오륜설이다. 오륜이란 다섯 가지의 인륜으로서 인간의 상호관계 윤리를 일컫는다. 맹자의 오륜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 부자간에 친애함이 있고, 군신간에 의리가 있으며, 부부사이에 내외가 있고,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질서가 있으며, 부우간에 믿음의 있다.(『맹자』 「등문공」 상.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친(親), 의(義), 별(別), 서(序), 신(信)의 오륜은 가정윤리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장승구 외, 2002:48). 이와 같은 전통적 도덕관념들이 여성 친족 호칭어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장유유서(長幼有序)와 남녀유별(男女有別)이다. 이와 같은 관념은 결과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여성 친족 호칭어에서 많이 강조하는 손윗사람에 대한 존대문제와 남녀차별을 야기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는

36) 사회 윤리는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도덕적 규범을 통틀어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본고에서 사회윤리는 주로 중법사회의 가부장제도와 도덕관념 두 가지를 포함한다.

37) 『史紀夏本紀』에서 ‘禹之父曰鯀, 鯀之父曰顓頊, 顓頊之父曰昌意, 昌意之父曰黃帝’, 또 ‘禹者, 黃帝之玄孫, 而帝顓頊之孫也, 禹之曾之大父昌意及父鯀皆不在帝位’라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하나라 때부터 부계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성원에 대하여 서열구분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고륙양, 2007).

여성 청자가 손윗사람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님'을 붙이는 높임형을 사용하는 반면에 청자가 손아랫사람인 경우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리고 여성 친족(모계)과 남성 친족(부계)에 대한 여성 호칭어 사용의 차이 등은 전통적 도덕관념과 도덕윤리에서 비롯된 장유유서와 성별차이에 의한 차별화 사상이 호칭어에 영향을 미치게 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3.1.1.2. 한·중 여성 친족 호칭어의 차이점

한국어와 중국어의 여성 친족 호칭어는 비슷한 사회윤리 체계하에서 유사점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차이점 또한 상당히 많은 것이 특징이다.

첫째, 한국어에서는 화자의 성별에 따라 여성 친족 호칭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어에는 그러한 구별이 없다. 다음은 누이와 형의 아내에게 사용하는 호칭어이다.

<표 8> 누이/형의 아내에게 사용하는 호칭어

호칭 대상	화자 성별	한국어	중국어
손위 누이/언니	남	누나, 누님	姐/姐姐(언니/누나)
	여	언니, 형님	
형/오라버니의 아내	남	형수(님), 아주머니(님)	嫂子(형수/형님)
	여	언니, 새언니, 형님	

여기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는 남성 화자가 자신보다 나이 많은 여자 형제에게 '누나', 또는 '누님'이라고 부르지만, 여성 청자는 '언니'라고 부른다. 이와는 달리, 중국어에서는 똑같이 '姐姐(언니/누나)'를 부르고 있다. 마찬가지로 남성 화자가 자신보다 나이 많은 남자 형제의 배우자에게 한국어에서는 '형수(님)', 또는 '아주머니(님)'라고 부르지만, 여성은 '언니', '새언니' 또는 '형님'으로 부른다. 중국어에서는 같은 의미의 호칭어로 '嫂子(형수님/형님)'을 부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 여성 친족 호칭어에서 화자의 성별에 따른 호칭어의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어에서는 여동생과 남동생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동생으로 부를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각각 '妹妹(여동생)', '弟弟(남동생)'을 호칭어로 사용한다.³⁸⁾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동생에게 사용하는 호칭어³⁹⁾

호칭 대상	화자 성별	한국어	중국어
여동생	남,여	이름, 애/이름, 동생, ○ ○어멈(어마)	이름/애칭, 妹妹(여동생)
남동생	남,여	이름, 애/이름, 동생, 아우, ○○아범(아빠)	이름/애칭, 弟弟(남동생)

<표 9>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어에서는 여동생과 남동생을 구별하지 않고 '동생'을 사용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각각 '妹妹(여동생)', '弟弟(남동생)'를 호칭어로 사용하는데 중국 여성 호칭어에서 성차별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어에서는 여성 친족 호칭어가 청자의 혼인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는 손아래 여성 친족에게 결혼 전에는 보통 이름을 호칭하고, 결혼 후에는 매개 호칭어를 사용하는 데 반해, 중국어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거의 이름으로 호칭한다. 다음은 딸과 여동생에게 사용하는 호칭어이다.

<표 10> 딸/여동생에게 사용하는 호칭어

호칭 대상	화자 성별	한국어	중국어
딸	남,여	이름/이름, (○○)어미 (어멈)(결혼 후)	이름/애칭, 閨女(딸애야)
여동생	남,여	이름, 동생/이름, 동생, ○○어멈(엄마)(결혼 후)	이름/애칭, 妹妹(여동생)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여성 친족 호칭어는 여성 혼인 여부의 영향이 중

38) 趙鐘淑(2005:42) 내용 참조. 在称呼同輩年幼者時,漢語依照被称呼者性別的不同分爲'弟弟'和'妹妹',而韓語則不分,統稱'동생'.

39) 남동생에게 사용하는 호칭어는 고륙양(2007:29/37)을 참조. 여성 친족 호칭어의 대조에서 여동생에 대한 호칭을 설명하기 위하여 남동생에 대한 호칭과 대조하여 차이점을 표현하고자 한다.

국어보다 훨씬 크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는 미혼인 딸에게 '이름'으로 부르지만, 결혼한 후에 '이름' 호칭어보다는 '(○○)어미(어멈)'이라고 많이 부른다. 중국어에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 이름을 부르는 것을 선호하고 사회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쓰인다.

넷째, 중국어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부계 가족을 부를 때나 남편이 아내의 부계 가족을 부를 때를 막론하고 상대방의 부계 호칭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서로 다른 호칭어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아내의 경우는 남편의 가족성원에게는 나이, 혼인 여부 등 요인을 무시한 채 거의 다 높임형 호칭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성별 요소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시누이/아내의 여동생에게 사용하는 호칭어

호칭 대상	화자 성별	한국어	중국어
손위 시누이	여	형님, 큰누님, 큰아가씨	姐/姐姐(언니)
손아래 시누이	여	아가씨, 작은아가씨	이름
시동생의 아내	여	동서, 아우님	이름
아내의 여동생	남	처제	이름
손아래 처남의 댁	남	처남의 댁, ○○어머니	이름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는 미혼 손위 시누이에게 '형님', '큰누님', '큰아가씨'라고 부르고 손아래 시누이에게도 높임형 '아가씨' 혹은 '작은아가씨'로 부른다.⁴⁰⁾ 중국어에서는 이런 차이가 전혀 없으며, 아내가 남편의 시누이에게도 자기의 친자매와 똑같이 '姐姐(언니)'로 사용한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손아래 처남의 댁에게 '처남의 댁' 또는 '매개' 호칭을 사용하고 '○○어머니'라고 부른다. 반대로 아내가 시동생의 아내에게 '동서' 혹은 '아우님' 등 높임형으로 부르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손아래 친족에게 직접 이름을 불러도 된다는 것이 한국어와 차이점이다.

40) 오늘날 '아가씨'란 처녀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사가 되었고, 한편 며느리가 시누이를 부르는 이름으로도 쓰인다. 이는 시집식구를 도련님·아가씨 식으로 높여 부르던 궁중의 유풍이다. 김용숙(1987), 『조선조 궁중풍속연구』, 서울: 일지사.

다섯째, 한국어에서는 아내의 어머니에게 '장모님', 또는 '어머(니)님'이라고 부르지만, 중국어에서는 자기의 친어머니를 부르듯이 '媽媽(어머니)'라고 부른다. 다음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12> 아내의 어머니에게 사용하는 호칭어

호칭 대상	화자 성별	한국어	중국어
아내의 어머니	남	장모님, 어머(니)님	媽/媽媽(어머니)

물론 중국어에서도 '장모(丈母)'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근래는 가족에서 높임을 의미하는 호칭어인 '장모'보다 친근감을 나타낼 수 있는 '어머니(媽)'를 더 많이 사용한다.

여섯째, 한국어에서 여성 친족 호칭어에 '-님'과 많이 결합하여 사용한다.⁴¹⁾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이런 높임형 표현이 없다.⁴²⁾ 다음은 아내의 어머니와 아버지 친족에게 사용하는 호칭어이다.

<표 13> 아내의 어머니와 아버지 친족에게 사용하는 호칭어

호칭 대상	화자 성별	한국어	중국어
아내의 어머니	남	장모님, 어머(니)님	媽/媽媽(어머니)
아버지의 누이/여동생	남,여	고모(님), 아주머니(님)	姑姑/姑媽(고모)
형/오라버니의 아내	남	형수(님), 아주머니(님)	嫂子(형수/형님)
	여	언니, 새언니, 형님	

위의 <표 13>에서 호칭어의 뒤에 '-님'을 붙여 청자를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호칭 체계에만 있는 특이한 형식이다. 이로부터 한국어의 친족 호칭어는 중국어의 친족 호칭어보다 존경의 의미가 훨씬 더 강조되어 나타남을

41) 이익섭(1994:207) 참조. <님>은 친족 명칭에도 결합된다. 누님, 숙모님, 고모님, 이모님, 장모님, 어머님 등 경우가 있다.

42) '-님'은 의존명사로서 사람의 성이나 이름 다음에 쓰여, 접미사로서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야 한다(『표준국어대사전』).

알 수 있다.

일곱째, 중국어 여성 친족 호칭어에서 화자는 남자 형제의 딸에게 '侄女(조카딸)'로, 여자 형제의 딸에게 '外甥女(생질녀)'로 부르는 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똑같이 '조카'로 부른다.⁴³⁾ 다음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14> 조카딸에게 사용하는 호칭어

호칭 대상	화자 성별	한국어	중국어
조카딸	남,여	이름/이름, 조카, (○○) 어미(어멈)(결혼 후)	이름/애칭, 남자 형제의 딸: 侄女(조카딸), 여자 형제의 딸: 外甥女(생질녀)

여기에서 보듯이, 중국어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 여성 친족 호칭어의 차이점은 유사점보다 훨씬 더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주요한 원인은 무엇일까?⁴⁴⁾

한국은 세계에서 유교사상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나라로서 유교사상의 영향은 한국 사회의 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한국인의 사고방식도 유교적 사상과 윤리도덕의 영향을 받고 있다. 유교적 사상이 남아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로 한국어 여성 친족 호칭어를 들 수 있다. 즉 여성 호칭어에 장유유서(長幼有序), 남녀유별(男女有別), 남존여비(男尊女卑) 등 유교 사상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과 달리 중국은 유교의 종주국이지만, 1949년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후로부터 지금까지 유교적 예의범절에서 약 55년간 큰 변혁을 겪어왔다. 사회주의는 관민, 남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평등을 내세워 기존의 사회와 선을 긋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이념적 투쟁과 통치적 전략은 유교에서 비롯된 소위 '봉건(封建)' 문물에 대한 인위적인 억제와 타파로 인하여 유교는 쇠퇴해 가고 유교의 전통적 윤리도덕의 영향 또한 크게 축소되었다. 이념 투쟁뿐만 아니라 새로 건립된 사회주의 중국은 밖으로는 서양세계로부터 고립되고 포위되며 안으로는 다년간의 전쟁을 치른 결과로 국가가 파산의 곤경에 빠지게 되고 생산력이 극히 부족한 처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극악의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성차별 없이 최대한으로 전

43) 중국어의 어떤 방언에서는 한국어와 같이 동일 호칭어를 쓰이기도 한다. 예컨대, 하문(廈門) 방언에서 '조카'에게 '外甥(생질)'로 부르고, 복주(福州) 방언에서 '외가손(外家孫)'으로 부른다(齊曉峰, 2004:20).

44) 고륙양(2007:51) 참조로 정리하였다.

투력과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남존여비, 성차별 사상에 대한 소멸작전을 대대적으로 일으켰다. 그 후에 인위적 문화 재앙인 문화대혁명을 일어남으로써 전통적 유교이념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언어는 사회관계를 반영하는 주요 도구로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법률 등 제도에 따라 변화·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발전의 차이가 호칭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1.2. 여성 친족 호칭어의 대조를 통해 본 한·중 여성의 가족 내 지위

지금까지 살펴본 한·중 여성 친족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의 연령이나 성별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리라는 특징을 쉽게 볼 수 있다. 예컨대, 한국어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부계와 모계 여성 친족 호칭어가 차별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변수에 따른 한·중 여성 친족어의 대조를 통해 본 여성 친족 호칭어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성별, 혼인 여부, 항렬 등 사회적 변수에 의해 여성 친족 호칭어가 다르게 사용된다.

둘째, 한국어의 여성 친족 호칭어에는 중국어보다 훨씬 많은 성별 요소가 사회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모계 호칭어를 부계 호칭어와 차별화한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화자의 성별에 따라 여성 친족 호칭어를 다르게 사용하며, 아내가 남편의 부계 가족을 부를 때나 남편이 아내의 부계 가족을 부를 때는 서로 다른 호칭어를 사용한다. 또는 한국어에서는 아내의 어머니에게 '장모님', 또한 '어머(니)님'이라고 부르지만, 중국어에서는 자기의 친어머니와 같이 '媽媽(어머니)'라고 부른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어에서는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각각 '妹妹(여동생)', '弟弟(남동생)'로 호칭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똑같이 '동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중국어 여성 친족 호칭어에서 화자는 남자 형제의 딸에게 '侄女(조카딸)'로, 여자 형제의 딸에게 '外甥女(생질녀)'로 부르지만 한국어에서는 같이 '조카'라고 부른다.

셋째, 여성 청자 혼인 여부에 의해 한국어 여성 친족 호칭어가 다르게 나타난다.

넷째, 여성 청자의 항렬과 연령의 차이가 있어서 한국어에서 대개 손윗사람에게

는 친족 호칭어의 높임형을 사용하고 청자가 손아랫사람일 때는 직접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적 변수에 따른 한·중 여성 친족 호칭어의 특징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사회적 변수에 따른 한·중 여성 친족 호칭어의 특징

사회적 변수	한국어	중국어
성별	<p>①'외'를 첨가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모계 호칭어를 부계 호칭어와 차별화한다.</p> <p>②화자의 성별에 따라 여성 친족 호칭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p> <p>③아내가 남편의 부계 가족을 부를 때나 남편의 아내의 부계 가족을 부를 때는 서로 다른 호칭어를 사용해야 한다.</p> <p>④아내의 어머니에게 '장모님', 또는 '어머(니)님'이라고 부르지만, 중국어에서는 자기의 친어머니와 같이 '媽媽(어머니)'라고 부른다.</p>	<p>①'외'를 첨가하는 방식이나 아예 다른 호칭어를 사용함으로써 모계 호칭어를 부계 호칭어와 차별화한다.</p> <p>②여동생과 남동생에게 각각 '妹妹(여동생)', '弟弟(남동생)'로 호칭한다.</p> <p>③화자는 남자 형제의 딸에게 '侄女(조카딸)'로, 여자 형제의 딸에게 '外甥女(생질녀)'로 부른다.</p>
혼인 여부	혼인 여부에 의해 그 여성 청자에 대한 호칭어가 다르다.	
항렬/연령	손윗사람에게는 친족 호칭어의 높임형을 사용하고 청자가 손아랫사람일 때는 직접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손아랫사람에게 '이름' 호칭어로 사용하는 반면, 손윗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다.

이상에서 드러난 언어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 여성의 가족 내 지위를 사회적 변수와 관련시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여성 친족 호칭어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중국에 비해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한국 여성 호칭어가 여성 청자의 결혼 제약을 더 많이 받는 데 비해 중

국은 혼인 여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손아랫사람에게 결혼 후에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호칭어 대신에 아이의 이름으로 매개 호칭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중국어의 호칭어와 비교된다. 중국어 여성 친족 호칭어보다 한국어 여성 친족 호칭어는 사회적 변수에 따른 제약을 많이 받아왔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여성의 가족 내 지위는 한국 여성보다 훨씬 더 높게 보인다.

3.2. 한·중 여성 비친족 호칭어

3.2.1. 한·중 여성 비친족 호칭어의 대조

제2장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 여성 비친족 호칭어의 유형은 박정운(1997)의 분류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 이름 호칭어, 여성 직함 호칭어, 여성 대명사 호칭어, 여성 통칭 호칭어,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 기타 여성 호칭어로 분류하고 전개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호칭어의 제약이나 세부적 특징은 언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특히 비친족 호칭어의 사용은 주관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화자의 신분, 성별, 문화 정도, 연령 그리고 말할 때의 심리적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대화 장소, 대화 대상, 사회 상황 그리고 제3자가 그 장소에 있느냐의 여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衛志強, 1994:143).⁴⁵⁾

아래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여성에게 사용되는 비친족 호칭어를 유형별로 대조 분석을 통해,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직장과 일반사회에서 각각 어떻게 호칭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2.1.1. 한·중 여성 이름 호칭어

가. 한국어 여성 이름 호칭어⁴⁶⁾

45) 이재승(1994:111)에서 재인용.

46) 여성 이름 호칭어는 여성 청자에게 쓰이는 이름이 호칭어로 사용되는 형태이다. 이름이 호칭어로 사용되는 것은 언어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언어에 따라 사용에 따른 제약이나 세부적인 특성은 다를 수 있다 (원운하, 2008:21).

비친족 여성 호칭어로서 한국어의 이름 호칭어는 이름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형태보다는 이름에 '-씨, -양' 등의 후치 첨가 성분이 붙어서 사용되는 형태가 더 보편적인 것이다. 다음은 한국의 여성 이름과 첨가 성분의 결합관계를 제시할 것이다.

<표 16> 한국어 여성 이름 호칭어의 결합 양상⁴⁷⁾

분류	-아/-야	-이Φ	-씨	-양	미스-	-선생	독립
성+이름	×	○	○	○	×	○	○
이름	○	○	○	○	×	○	○
성	×	×	×	○	○	○	×

<표 16>에서, 이름에 '-아/야'가 붙은 형태는 이름 호칭어에서 가장 친근감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주로 나이가 어린 여성 청자에게 사용된다. 예를 들면, '영자야, 너 어디 가니?'에서 '성+이름/이름'에 '-이/Φ'가 붙은 형태는 '-아/-야'가 붙은 형태보다 좀 더 거리가 먼 관계에 있는 여성 청자에게 사용된다.

'씨'가 붙은 형태는 성인 청자에게만 사용된다. '성+씨'는 여성 청자에게 사용하지 않고 주로 비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남성 청자에게 사용된다. '성+씨' 형태는 '이름+씨'와 '성+이름+씨' 형태보다 존대의 정도가 낮다. 두 형태 가운데서도 '성+이름+씨'의 형태가 '이름+씨'의 형태보다 거리감이 더 느껴진다.

'-양'이 붙은 형태는 주로 대학생 정도의 나이가 든 젊은 여성 청자에게 사용된다. 류재봉(1997:351)에서는 '양'이란 말을 기혼의 부인에게 쓰면 결례가 된다고 보고 처녀의 성이나 이름 다음에 붙여 처녀에게만 붙여야 한다고 보았다.⁴⁸⁾ 한편, 양혼(2007)에서는 미혼의 여성일지라도 결혼 적령기가 지난 30대에게는 쓰는 것은 결례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나이 많은 노처녀에게 미혼이라 하여 '양'이라고 부르면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이란 말은 여고생 정도 이상의 미혼 여성을 부를 때 많이 쓰인다.⁴⁹⁾

독립적인 호칭어로 쓰이는 유형은 '성+이름'과 '이름'이 있다. '이름'의 경우는

47) 본고에서 '○'는 그러한 사용이 가능함을 뜻하고 '×'는 가능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Φ'는 자리가 비어 있음을 의미한다.

48)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인 '양'은 접미사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그 일을 직업으로 가진 여자'의 뜻을 더하는 경우에 접미사로 쓰인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처녀'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접미사라기보다는 의존명사로 처리되어 있다.

49) 그 외에도 이익섭(1994)에서 실제로 '양'은 주로 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자에게 쓰이는 한계를 보인다.

주로 아이들을 꾸짖을 때 거리감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친근감을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 반면에 '성+이름'의 경우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 외에 '-님'이 붙는 형태는 일대일의 대화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병원에서 화자를 부를 때와 같이 극히 제약된 상황에서만 사용된다.⁵⁰⁾

한편, '미스-'는 영어에서 차용된 외래어로 주로 여성 청자의 성 앞에 붙어 호칭어를 구성한다. 이러한 호칭어는 주로 직장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친근하게 부를 때나 특별한 직함이 없는 젊은 여성 청자에게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무영(1994)에서는 한국어의 호칭에는 상하가 있어 거북하다고 여겨서인지 '미스 박'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며 이 호칭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이름/이름/성'에 '-선생'이 붙은 형태가 호칭어로 사용하는 경우, 주로 받는 대상에게 비교적 높여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교수가 대학원에 다니는 여성 제자를 정중하게 대우해 호칭할 때 사용된다.⁵¹⁾ 지칭어로 사용하며, 어떤 상황에서 받는 대상에게 아주 높임을 나타낼 수도 있다.⁵²⁾

여성 이름 호칭어는 일반적으로 손아래 여성이나 동급의 여성 청자에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이름 호칭어는 상하관계와 친소관계에 따라 사용상의 제약을 받는다.⁵³⁾

나. 중국어 여성 이름 호칭어

중국은 다민족으로 형성된 나라로서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한국과는 달리 민족 언어와 각 지역의 사용 방언에 따라 호칭어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 여성 호칭어는 본고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주로 한민족(漢民族)이

50) 최현배(1961)에 따르면 이름에 존대 접미사 '-님'이 붙는 형태는 호칭어로 사용될 수 있다. 실제 언어 생활에서도 은행, 우체국, 병원 등과 같은 청자의 이름과 청자에 대한 존대를 같이 강조해야 하는 서비스 업소 등에서 임직원이 손님의 이름을 강조해 부를 때는 '성+이름+님'의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편지 봉투에서 수신자에 대한 존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름 뒤에 '-님'이 붙은 형태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륙양, 2007:54).

51) 이재승(1999:118)에서 '성+선생'은 상대를 비교적 높여 부르는 호칭어이며, '성+이름+선생님'이라는 호칭어는 가장 상대를 존중하는 호칭어이다.

52) '선생'이라는 호칭어는 사용할 때 성별과 상관없이 극존(極尊의 대상에게, 즉 덕망(德望)이 아주 높거나 역사적으로 큰 공헌을 해낸 극히 존경을 받는 대상에게는 '성+이름+선생' 형태가 사용되어 아주 높임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시경 선생', '최현배 선생'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주로 지칭어로 사용된다(고륙양, 2007:55).

53) 박정운(1997, 509)에서 이름 호칭어는 상하관계(power)와 친소관계(solidarity)에서 사용상의 제약을 받는다.

사용하고 있는 말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어의 여성 이름 호칭어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첨가 성분이 없는 형태, 또 하나는 첨가 성분이 있는 형태이다.

첨가 성분이 없는 형태는 '이름', '성+이름'과 '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婷婷(팅팅), 紅月(홍이웨), 劉麗(류리), 孫麗麗(손리리), 南宮(남궁), 上官(상관)' 등이 있다. 이 유형은 동년배, 혹은 손아래 여성에게 자주 사용하는 호칭이다. 성만 사용하는 유형에 단지 2음절만을 적용한다(曹炜, 2005:66).⁵⁴⁾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화자가 남성인 경우이면 여성 청자에게 일반적으로 '이름' 앞에 '성'을 붙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랫동안 같이 공부하거나 일을 해 온 친한 여성인 경우에만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친밀함이 지나쳐 결레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임수진, 2003:37~38).⁵⁵⁾

첨가 성분이 있는 형태는 주로 '小(소)-, 大(대)-, 老(노)-' 등과 같은 전치 첨가 성분이 성 앞에 결합되는 형태와 '-同志(동지=동무), -小姐(소저=아가씨), -女士(여사), -先生(선생)' 등과 같은 후치 첨가 성분이 결합되는 형태로의 구분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내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중국어 여성 이름 호칭어의 결합 양상⁵⁸⁾

분류	-小姐(아가씨)	-女士(여사)	-同志(동무) 56)	-先生(선생) 57)	老-/大-/小 -(노/대/소)	독립
성	○	○	○	○	○	2음절
이름	2음절	2음절	2음절	2음절	×	○
성+이름	○	○	○	○	×	○

여기에서 보듯이, 중국어에서의 전치 첨가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여성 이름 호칭

54) 성은 단독으로 호칭어를 쓰일 때 단지 2음절의 성이 제약된다. 예를 들어, 上官, 申屠, 諸葛, 歐陽, 司徒, 黃甫 등이 있다. 양흔(2007:23)에서 재인용.

55) 양흔(2007:21)에서 재인용.

56) '이름+同志'와 '성+同志'는 남성과 여성에게 다 적용될 수 있지만, 정치적 색채가 강한 호칭어로 주로 중국대륙의 정부 공무원, 공산당원, 군인, 경찰 등 공직자 간에 서로 호칭할 때 사용되고 사용 환경도 엄숙하고 정치적인 분위기가 강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된다.

57) '先生(선생)'과 '小姐(아가씨)'라는 말은 원래 신분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부르는 존칭이다. '小姐'는 명문 집안의 딸이고 '先生'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

'先生'与小姐原來都是對有身份由地位的人的尊稱小姐指名門閨秀, 先生指有身份由地位的人(梁鞅灵, 2009).

58) 이름 뒤에 후치성분을 첨가할 때 반드시 이름은 2음절의 경우에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는 성 앞에 접두 성분을 붙여 쓰는 습관이 없다. 전치 첨가 방식을 예로 제시하면 '老張(노장), 老王(노왕)' 등 주로 동급의 사람 또는 연령 차이가 많지 않은 손아랫사람이나 손윗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에 '老(노)+성'이라 부른다. '大(대)+성'이라 부르는 유형은 주로 화자와 여성 청자의 나이와 비슷하거나 동급 또는 손아랫사람에게 사용된다. 특히 친숙한 사이인 사람에게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大+성'의 유형은 이름 호칭어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키가 큰 사람에게나 같은 직장에서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나이나 키에 따라 '大(대), 小(소)'를 앞에 결합하여 호칭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大劉(대류), 小劉(소류)' 등이 그러하다. '小(소)+성'의 유형은 '大(대)+성'에 비해 호칭어로 많이 사용한다. 주로 젊은 손아랫사람을 친근감 있게 부를 때 사용된다. 그러나 이 유형은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후치 성분이 결합된 형태는 이름이나 성함을 부르는 것보다 정중하게 보인다. '-小姐(아가씨), -女士(여사), -先生(선생), -同志(동무)' 등과 결합한 형식은 전치 형식에 비해 이름을 이미 알고 있지만, 거리가 가깝지 않은 여성 청자에게 정중하게 호칭하는 것이다. '성+小姐'와 '성+이름+小姐'는 영어의 'Miss.+성' 형태와 'Miss.+성+이름' 형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성+女士'와 '성+이름+女士'는 영어의 'Ms.+성' 형태와 'Ms.+성+이름' 형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치 형식보다 화자의 태도가 더 정중하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 영어에서는 'Miss.'와 'Mrs'를 구별하지 않고 'Ms.'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어의 '-女士'는 또한 혼인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여성을 대우해서 부를 때 사용되는 호칭어이기 때문에 두 형태가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고륙양, 2007:65).

한편, 중국어의 '先生(선생)'은 한국어의 '선생'과 대응할 수 없으며, 중국어에서 '先生(선생)'은 어원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부르는 말이고, 또 하나는 영어 'Mr.'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성 호칭어에서의 '先生(선생)'은 주로 여성 청자에게 극존대나 정중함을 나타내기 위해 부르는 호칭어이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근래 중국어에서는 여성 호칭어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중국의 유명한 작가인 '冰心(빙심)'에게 '冰心先生(빙심 선생)'으로 부른다. 이는 '女士(여사)'보다 더 존경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한국어에서 교수가 대학원에 다니는 여성 제자를 정중하게 대우해 호칭할 때 '선생'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직함 호칭어 '老師(노

사)'와 대응한다.

다. 한·중 여성 이름 호칭어의 대조

지금까지 논의한 비친족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한·중 여성 이름 호칭어에는 유사점과 함께 차이점이 다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 이름 호칭어에 있어서 이름을 독립적으로 쓰는 형태보다 한국어는 이름에 '-씨, -양' 등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형태가, 중국어는 접두사 '大(대)-, 小(소)-' 등 성분이 붙어서 사용되는 형태가 더 보편적이다. 이 밖에도 여성 칭자 혼인 여부에 의해 호칭어를 다르게 사용한다. 예를 들면, '양'이란 말을 기혼의 부인에게 쓰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중국어에서도 기혼 여성 칭자에게 '-小姐(아가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여성 칭자의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호칭어를 사용한다. 중국어의 '-老(노), -大(대), -小(소)'는 대표적인 연령 차별화 요소로 들 수 있다.

한편, 한국어 여성 이름 호칭어는 이름이 독자적으로 호칭어로 사용되는 것은 드물고 보통 호격조사 '-아/-야', 또는 높임을 나타내는 '-씨', '-양' 등과 같은 첨가 성분이 이름 뒤에 붙은 형태로 사용된다. 중국어는 대우를 나타내는 조사 성분이 없고 성 앞에 '老(노)-/大(대)-/小(소)-' 등과 같은 연령적 차이를 나타내는 요소가 붙은 형태가 있지만, '-군/-양'과 같은 성별 차이가 나타낸 첨가 성분과 결합되어 호칭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다. 또한, 중국어에서 화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여성의 이름 앞에 성을 붙여야 한다. 오랫동안 같이 공부하거나 일을 해 온 친한 사람인 경우에만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친밀함이 지나쳐 결례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선생(先生)'이란 이름 호칭어는 한국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이 여성 칭자에게도 많이 사용되지만, 중국어에서는 제약을 받는다. 중국어에서 '선생'은 지위가 아주 높은 여성에 대한 존칭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다.

3.2.1.2. 한·중 여성 직함 호칭어

직함 호칭어는 그 사람이 맡는 직함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직함은 직장 공동체 내의 화자들이 같은 조직에 속해 있음을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호칭 범주이기 때문에 여타의 호칭 범주보다 훨씬 널리 사용된다. 직장 공동체 구성원들 중 대

다수는 직장 내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호칭 방식은 바로 직함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또 대화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이를테면 나이와 근무 기간)를 갖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호칭어로 직함을 거론하였다(고영중, 2006:14).⁵⁹⁾

그런데 직함 호칭어들은 대부분 성(性)에 따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여성 청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직함 호칭어는 여성 직함 호칭어로 간주하기로 한다. 중국어의 직함 호칭은 한국어의 그것보다 더 자세히 분류된다. 즉, 중국어에서는 직함 호칭을 직무(職務), 직칭(職稱), 직업(職業)으로 구분하는바, 본고에서는 이 세 가지를 직함으로 통칭하기로 한다(양훈, 2007:31).

가. 한국어 여성 직함 호칭어

한국어 여성 직함 호칭어는 '직함+(님)'과 '성+(이름)+직함+(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ㄱ. 직함+님	교수님, 부장님
직함	간호사, 반장, *교수
ㄴ. *이름+직함	*선희 과장, *지선 원장
성+직함	김 과장, 박 원장
성+직함+님	김 과장님, 박 원장님
성+이름+직함	김선희 과장, 박지선 원장
성+이름+직함+님	김선희 과장님, 박지선 원장님

'직함+(님)' 형태는 여성 청자를 높이는 유형으로 주로 손윗사람에게 사용된다. 동급 청자에게 사용될 때도 상대방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교수님, 과장님, 부장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직함이 단독으로 쓰이면 존대 접미사 '-님'이 직함에 붙어 호칭어를 형성한다. 즉 '교수'와 같이, 직함 단독으로는 일반적으로 호칭어로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간호사나 반장 등의 직함이 단독으로 호칭어로 사

59) 양훈(2007)에서 재인용.

용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들조차도 일대일의 대화 상황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⁶⁰⁾

'이름'은 직함과 함께 호칭어를 형성할 수 없지만, '성'이나 '성+이름'은 직함과 함께 호칭어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님'은 직함에 붙을 수도 있고 붙지 않을 수도 있다. '성+(이름)+직함+(님)' 형태는 주로 같은 직함을 가지는 사람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직함+(님)'이나 '성+(이름)+직함+(님)' 두 가지 유형은 다 여성 청자를 높여주는 기능이 있지만, 후자는 전자보다 높임의 의미가 더 강하다. '김선희 과장님, 이은경 원장' 등이 그 예이다.

여성 직함 호칭어의 사용은 단일 방향적 상하관계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또한 직함 호칭어로 사용될 수 있는 직함에도 제약이 있어서 모든 직함이 호칭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 호칭어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 판사, 감사, 감독, 기자, 교수, 선생, 의사'⁶¹⁾ 등과 권위가 있거나 존경의 대상이 되는 화이트칼라 직함이 주로 호칭어로 사용된다. 군인이나 경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위를 '성' 뒤에 붙여 상대방을 부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김 대위, 박 대령, 김 순경' 등이 있다. 그러나 '우편배달부, 사육원, 농민, 판매원, 청소부'와 같은 일반 서비스업의 종업원에게는 직함 호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청자가 윗사람인 경우에는 반드시 존대 접미사 '-님'이 붙은 직함 호칭을 써야 하지만, 윗사람은 어떤 유형의 직함 호칭어도 사용할 수 있다. 아랫사람에게 대접할 때 존대 접미사 '-님'을 붙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은 '격식적 예의(negative politeness)'를 차리는 경우이다.⁶²⁾ 그러나 아주 친한 아랫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직함 호칭어를 사용하지 않는 '격의 없는 예의(positive politeness)'가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교수가 된 제자를 일반적으로 '교수님'이라든지 '김 교수님'으로 부르지는 않는다(박정운, 1997:512).

60) 박정운(1997:51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직함이기는 하지만 단독으로나 '-님'과 함께 호칭어로 쓰이지 않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예: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61) 현대 한국어에서 '의사님' 형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의사선생님' 형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륙양, 2007:57).

62) '격식적 예의(negative politeness)'와 '격의 없는 예의(positive politeness)'에 대해서는 Brown & Levinson(1986)과 Lakoff(1973) 참조.

나. 중국어 여성 직함 호칭어

중국어 여성 직함 호칭어는 여성 직업 호칭어, 여성 직무 호칭어와 여성 직위의 명칭에 관련 호칭어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여성 직업 호칭어는 그 직업 자체를 호칭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공장, 학교, 부대, 기관에서 사람들은 보통 직업 호칭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호칭들은 상대방의 직업과 노동을 존중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화제 내용 대부분이 이러한 직업, 노동과 관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호칭의 사용은 일종의 예의에 맞는 호칭이라 할 수 있다(양흔, 2007:32). 직업 호칭어의 사용 형태는 ‘직업’과 ‘성+직업’이 있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위엄이 있고 존경 받는 직업은 독립적인 호칭어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의 경우는 독립적인 호칭어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런데 ‘服務員(복무원), 營業員(영업원), 郵遞員(우편배달부), 警察(경찰), 解放軍(군인), 炊事員(군대식당 주방장)’ 등과 같이 해방 후에 새로 생겼거나 옛날에 있었지만, 새 명칭으로 바뀐 직업들은 ‘직업+同志(동무)’의 형태로 호칭어로 사용된다.⁶³⁾

근래 중국어에서 정부기관의 교육과 문화 분야를 관장하는 공무원에게, 또는 문화예술 분야의 일반인에게 ‘同志(동무)’ 대신 ‘老師(교사-선생)’을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 옛날에 공부하는 사람은 필히 스승이 있느니라. 스승은 도리와 지식을 가르치고 의혹을 풀어주는 사람이니라. - 『사설』

(古之學者必有師, 師者, 所以傳道, 授業, 解惑也’—《師說》)

본래 ‘老師(노사)’는 학교에서 지식을 전수하고 의혹을 풀어주는 사람을 의미하였는데, 처음에는 학교나 문예단체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던 것이 지금은 일반사람에게 부르는 데까지 확대되어 사용되었다. 이것은 정치성이 강하고 친근감과 높임이 부족한 ‘同志(동무)’보다 ‘老師(노사)’는 청자를 더 높이 대우하는 동시에 친근감과 부드러움이 한결 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현상은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한다.

63) 해방 전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직업들, 예를 들면, ‘木工(목공-목수), 花匠(화장=정원사), 鐵匠(철공), 火夫(주방장)’ 등은 독립적인 호칭어로 사용되지 않으며 ‘-同志’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 없다.

또는, '老板(사장)'은 원래 주로 사영 기업주에게 적용되었던 호칭어로 사회주의 혁명 후 소멸되었다가 개혁 개방 후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老板(사장)'은 사영 기업주 이외에도 국가 소유 기업, 외상 기업 등을 비롯한 모든 경제체제의 회사, 기업의 총책임자, 회사, 기업 내부 어떤 부문의 책임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심지어 식당, 사우나 등과 같은 접객업소에서 종업원들이 모든 손님을 '老板(사장)'으로 호칭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여성 직무 호칭어는 청자의 업무 성질과 업무 내부의 구조 조직에 따라 부르는 호칭어이다. 예를 들면, '部長(부장), 主任(주임), 將軍(장군), 校長(교장), 科長(과장), 經理(매니저)' 등이다. 직무 호칭어의 사용 형태는 '직무'와 '성+(이름)+직무'가 있다. 예컨대, '經理(매니저), 科長(과장), 張部長(장 부장), 王主任(왕 주임), 李貞將軍(이정 장군), 劉鴻飛校長(류홍비 총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처럼 각종 직무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관직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성 직위의 명칭에 관련한 호칭어는 개인의 전공 영역이나 기술과 관련된 호칭어로서 직칭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教授(교수), 工程師(기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근래 중국에서 '總工程師(총기사), 工程師(기사)' 등의 긴 호칭어 앞에 성을 붙여 쓸 경우 간략하게 '성+工(공)', '성+總(총)'처럼 '王工(왕 공), 王總(왕 총)'이라고 뒷부분을 생략하여 부르기도 한다.

다. 한·중 여성 직함 호칭어의 대조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 여성 직함 호칭어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한·중 직함 호칭어의 사용은 상하관계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제약은 주로 단방향적인 것이다. 한국어에서 손아랫사람은 손윗사람에게 반드시 '-님'이 붙은 형태를 사용해야 하고 또 손윗사람의 이름을 피해야 한다. 중국어의 경우는 직함 명칭 자체가 높임 호칭어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높임성분이 없이 사용되지만, 상급 청자에게는 반드시 직함으로 호칭해야 하고 직함에 이름을 붙여 호칭하는 것은 예외에 맞지 않은 표현이다.

또한, 직함에 대한 차별화가 존재한다.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일부 직업만 호칭어로 될 수 있다. 호칭어로 사용될 수 있는 직업은 대부분 육체노동이 아닌 정신적 노동으로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직업들이다.

3.2.1.3. 한·중 여성 대명사형 호칭어

가. 한국어 여성 대명사형 호칭어⁶⁴⁾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2인칭 대명사는 형태상으로 상당히 다양한 편이며, 한국어의 2인칭 단수 대명사가 몇 개인가에 대한 의견도 학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Hwang(1975)에서는 너, 자네, 당신만을 2인칭 단수 대명사로 들고 있고, 이익섭·임홍빈(1983)에서는 너, 자네, 당신, 그대를 2인칭 단수 대명사로 보고 있으며, Cho(1982)에서는 너, 자네, 당신, 그대 이외에 자기, 임자를 첨가하고 있다. Pae(1974)에서는 Cho(1982)의 항목에 댁, 어른, 어르신을 첨가하여 9개의 2인칭 단수 대명사를 들고 있다. 또는 선생님을 2인칭 대명사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본고에서는 박정운(1997)에 따라 독자적인 어휘적 의미가 있는 임자, 댁, 어른(신), 선생님을 제외한 '너, 자네, 자기, 당신, 그대'만을 2인칭 단수 대명사로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대'라는 호칭어는 일반적으로 서신 또는 시 등에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청자'에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박정운, 1997:514~515).

한국어의 경우, 여성 대명사형 호칭어의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많다. 2인칭 대명사의 사용면에서의 제약은 순위 청자에게뿐만 아니라 친하지 않은 동급이나 손아랫사람에게도 작용한다. 가령, 교수가 대학원 제자에게는 '자네'라고 부를 수 있지만, 제자와 비슷한 연배인 친하지 않은 기타 대학원생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 여성 2인칭 대명사형 호칭어의 사용은 상하관계와 친소관계의 제약을 동시에 받는 것이다(박정운, 1997:515). 또한, 2인칭 대명사형 호칭어 사용상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특정된 윗사람에게는 쓸 수 없다는 것이다.

(6) ㄱ. *할머니, 너도 사과를 좋아하세요?

ㄴ. *할머니, 자네도 사과를 좋아하세요?

64) 한국어의 대명사는 그 지시 대상에 따라 1인칭(first person), 2인칭(second person), 3인칭(third person) 대명사로 분류할 수 있다. 1인칭대명사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고, 2인칭대명사는 청자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며, 3인칭대명사는 화자와 청자 이외의 제3의 인물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최재희, 2004:87). 본고에서 호칭어로 사용하는 대명사는 2인칭대명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로 2인칭 단수 형식 대명사를 가리킨다. 한·중 2인칭대명사는 남녀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특성을 가진다. 여기서 는 여성에게 사용할 수 있는 2인칭대명사는 여성 2인칭대명사 호칭어로 분석하겠다.

디. *할머니, 자기도 사과를 좋아하세요?

르. *할머니, 당신도 사과를 좋아하세요?

위와 같은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은 적절하지 못한 경우이다. 대신 '할머니, 할머니도 사과를 좋아하세요?'식으로 2인칭 대명사가 쓰이는 자리에 친족 호칭어나 직함 호칭어를 써야 된다.

'너'는 가까운 친구 사이나 존대할 조건에 있지 않는 아랫사람에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자네'⁶⁵⁾는 남성 화자와 남성 청자 사이에 더 많이 사용하거나 여성 화자의 경우는 주로 남성처럼 행동하는 여성이거나 회사 사장과 같은 전형적으로 남성의 역할로 인식되어 온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사용한다.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가 여학생들을 '자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정도가 '자네'라고 불리는 여성 청자일 것이다.

한편, '당신'은 아주 제약된 맥락에서만 쓰인다. '당신'은 분명히 '너'보다는 존대의 표현이기는 하나 동년배나 손윗사람에게는 쓰이는 데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현대에 와서 '당신'은 손아랫사람을 얼마만큼 대접해 줄 때 쓰이거나 부부 사이에 많이 사용되고,⁶⁶⁾ 그 외에 비칭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자기'의 2인칭 대명사적 기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해당하는 Park(1992)에서는 '자기'가 연인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자기'를 여성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2인칭 여성 대명사로 규정짓고 있지만, 박정운, 채서영(1999)에서는 '자기'가 꼭 연인 사이와 여자들 사이가 아닌 남녀간이나 남성들 사이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자기'를 사용하는 데 성별이 매우 중요한 결정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⁶⁷⁾

여성 2인칭 대명사형 호칭어의 제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5) 강희숙(2007)에서 '자네'의 용법에 대한 정리 결과는 첫째, '자네'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은 성인어어아 한다. 둘째, '자네'는 상위자가 하위자에게는 일방적으로, 혹은 성인 남성들 간에는 양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전남방언에서는 '자네'가 친족 호칭어에서 손아랫사람은 손윗사람에게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66) 최재희(2004:88) 내용 참조.

67) 자기의 2인칭 대명사로서의 발달은 세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자기는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사용되었었고 그러한 사람들 중 일부는 결혼을 한 후에도 상호간에 자기를 2인칭 대명사로 사용함으로써 일부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자기가 이전의 당신을 대신하고 있다. 두 번째, 여성 사이에 자기가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됐다. 셋 번째, 남녀 혹은 남성 대화자들 사이의 2인칭 대명사로 발달하고 있다 (왕한석, 2005:240).

<표 18> 여성 2인칭 대명사형 호칭어의 제약적 양상⁶⁸⁾

유 형	친소관계(친)		친소관계(소)	
	상→하	동 급	상→하	동 급
당 신	?	?	?	?
자 네	○	○	×	×
자 기	○	○	×	×
너	○	○	○	×

나. 중국어 여성 대명사형 호칭어

중국어에서 2인칭 단수 대명사는 '你(니)'와 '您(닌)'밖에 없다.⁶⁹⁾ '您(닌)'은 '你(니)'의 존대어로 쓰여 글자 자체에 존경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7) ㄱ. 你也喜歡吃蘋果嗎?

(너/자기/자네/당신)도 사과를 좋아하니?

ㄴ. 奶奶, 您也喜歡吃蘋果嗎?

*할머니, (너/자기/자네/당신)도 사과를 좋아하세요?

ㄷ. 奶奶, 奶奶也喜歡吃蘋果嗎?

할머니, 할머니도 사과를 좋아하세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어 여성 2인칭 대명사형 호칭어 '您'은 윗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 여성 대명사형 호칭어의 사용은 많이 자유스럽다.

다. 한·중 여성 대명사형 호칭어의 대조

한국어와 중국어 여성 대명사형 호칭어 사용에 있어서 유사점도 나타나지만 차이점은 훨씬 더 분명하다. 예를 들면, 한국어 여성 2인칭 대명사형 호칭어는 윗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할 때 제약을 많이 받는다. 중국어의 2인칭 대명사

68) 이익섭(1994:202~206) 내용을 참조로 정리하였다. 여기서 '?'는 그러한 사용이 불명확함을 뜻한다. '당신'은 '너'나 '자네'보다 상대방을 높여 주는 등급이라고는 하나 결국은 아랫사람에게 쓰는 등급인데다가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선택해 쓰기가 까다롭기 그지없다.

69) 黃伯榮·廖序東(2003, 下:28)에서 第2人称代詞指听话一方, 單數用'你', 尊稱用'您', 複數用'你們'.

2인칭대명사는 청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수형으로는 '你', 존칭으로는 '您', 복수형으로는 '你們'.

는 호칭어로서윗사람에게 사용하여도 존경의 뜻을 함의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의 여성 2인칭 대명사는 중국어 여성 2인칭 대명사보다 많은 제약을 받는다. 또한, 한국어에서의 여성 2인칭 대명사형 호칭어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당신'처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는 '자네'와 같이 남성 화자와 남성 청자 사이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성별의 제약이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성별과 상관없이 다 같이 '您'과 '你'로의 호칭이 가능하다.

3.2.1.4. 한·중 여성 통칭 호칭어

가. 한국어 여성 통칭 호칭어

통칭 호칭어는 주로 상대방을 높이거나,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 특정한 명사들을 호칭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통칭 호칭어를 명사형 호칭어라고 하기도 한다. 박정운(1997)에 따르면 한국어 통칭 호칭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직함/직업 호칭어가 일반화되어 사용되는 통칭 호칭어이다. 이 중에 여성에 대한 호칭 형태는 주로 '선생(님), 사모님, 학생'이 있다. 다른 한 가지 유형은 친족 호칭어가 일반화되어 통칭어로 사용되는 형태이다. 여성에 대한 통칭 호칭어는 주로 '아주머니/아줌마, 언니, 아가씨, 할머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여성 친족 호칭어가 일반 호칭어로 대응되는 호칭어는 의사 친족 호칭어로 간주하며, 다음 부분에서 따로 제시하겠다. 여기에서는 주로 여성 청자에게 사용되는 직함/직업 호칭어 '선생(님), 사모(님), 학생'의 통칭 사용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생'의 근본적인 뜻은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나 여성 통칭 호칭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여성 청자가 교직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도 화이트칼라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보이거나 학문이나 어떤 기예가 뛰어나면 '선생님'으로 부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직함이 없는 선배 또는 나이가 많은 동료 직원을 '-씨'로 부르기는 어렵고, 이 경우는 '-님'을 붙여 '선생님'으로 부를 수 있다.⁷⁰⁾

'사모'는 원래 '스승의 부인'의 뜻이지만, 통칭 호칭어로 '사모님'의 형태로 주로 이름이나 직함/직업을 모르는 기혼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대접해 부를 때 혹은 직장

70) 국립국어연구원(1996, 상:181~182) 참조.

상사의 아내에게 많이 사용한다. 현실적으로도 윗사람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로 확대되어 쓰이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우리말의 예절, [上]). 호칭 문화가 변하여 윗사람의 아내를 사모님으로 부르는 것을 인정한다 하여도 모든 기혼 여성, 심지어 갓 시집온 젊은 세대까지도 사모님으로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사모님이란 호칭을 모두가 올바르게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류재봉, 1997:341).⁷¹⁾

'학생'이 여성 통칭 호칭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학생처럼 보이는 불특정한 젊은 여자에게 사용된다.

나. 중국어 여성 통칭 호칭어

중국어에서의 여성에 대한 통칭 호칭어도 한국어와 비슷하게 일반 형태와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 형태로 구성된다. 의사 친족 호칭어 형태를 제외한 여성 통칭 호칭어는 주로 '同志(동무)', '師傅(사부)', '小姐(아가씨)', '女士(여사)', '夫人(부인)', '同學(동학=학생)' 등이 있다.

'同志(동무)'라는 호칭은 1949년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이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호칭어는 『國語晉語四』의 '同德則同心, 同心則同志'⁷²⁾라는 말과 같이 '同志(동무)'의 원래 의미는 지향하는 것이 같은 사람을 가리켰다. 특히 같은 정당에 속하는 사람들이 서로 부르는 말이지만,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후 '同志(동무)'의 사용이 사회 각 계층에 확산되어 연령, 성별, 사회지위와 상관없이 정치적 타격 대상만이 아니면 다 적용될 수 있는 통칭 호칭어로 성장해왔다. 나이든 사람과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老同志(노동무)'라고 부르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小同志(소동무)'라고 부르며, 처음 만난 사람도 '同志(동무)'라고 불렀다. 1960년대부터 현대까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호칭어의 사용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양흔, 2007:57).

'師傅(사부)'는 옛날부터 있었던 호칭어로 원래 적용된 대상은 주로 '스승' 또는 '승려', '도사' 등이 있다. 현재 호칭어로서의 '師傅(사부)'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나 서비스 업종의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존칭으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식인인 교

71) 류재봉(1997)에서 '사모님'이라는 호칭어는 윗사람의 아내를 사모님으로 일컫는 것에 반대하지만 호칭 문화의 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므로 이를 인정하고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72) 덕을 가지는 사람은 마음도 같은 방향으로 지향하며, 마음은 같은 방향으로 지향하는 사람은 지향도 같다.

사, 의사, 변호사, 그리고 관리직을 담당하는 사람, 군인, 경찰 등에게는 '師傅(사부)'의 사용이 부적절하다. '師傅(사부)'의 확대 사용은 사람의 사회관계, 사회 심리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971년 어떤 연구원에서 200여 명의 견습공을 모집했는데 그들은 대부분은 이 연구원의 기사(工程師)에게 '師傅(사부)'라고 불렀다. 이는 '師傅(사부)'라는 호칭을 서비스 종업원들에게뿐만 아니라 고등 교육을 받은 지식층의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師傅(사부)'를 사용하는 비율은 노인들보다 많다.

'師傅(사부)'라는 호칭어는 '同志'보다 더 서민적이며 더 부드럽고 더 친근감을 줄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불특정 대상에게 '사부'로 호칭하는 현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많은 구속을 받아 왔기 때문에 모르는 남에게 친밀한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호칭어 '師傅(사부)'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同志(동무)'라는 호칭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여성보다 남성, 특히 젊은 남성은 '師傅(사부)'를 통칭 호칭어로 더 많이 사용한다.

여성에 대한 특징적 통칭은 '小姐(아가씨), 女士(여사), 夫人(부인)'이 있다. '小姐(아가씨)'는 주로 미혼의 젊은 여성을, '女士(여사)'는 혼인 여부가 판정하기 힘들 경우는 여성을 정중하게 대접해 호칭할 때, '夫人(부인)'은 지위가 높은 기혼 여성을 정중하게 부르는 호칭어이다. 여성 청자 혼인 여부를 판정하기 힘들 경우는 일반적으로 '小姐(아가씨)'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국에서 개혁 개방한 후, 일정 기간 내에 '小姐'란 호칭은 복무원이나 젊은 여성층에게 많이 사용했었다. 그러나 20세기 90년대부터 사회 발전의 과정에서 '小姐(아가씨)'는 사회요인으로 인하여 한국어의 '아가씨'와 비슷한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⁷³⁾

'同學(학생)'은 주로 서로 이름을 모르는 학생끼리 호칭할 때, 또는 손윗사람이 학생처럼 보이는 손아래 젊은 사람에게 부를 때 많이 사용한다.

73) 改革開放之后的一段時間, '小姐'多用于'服務員'的代称, 年輕女士也常被称为'小姐'. 當時被称为'小姐'的女性无不覺得很受用, 比起'同志', '師傅'之類, '小姐'含有尊貴, 年輕, 精緻, 時尚的潛在意味. 但是, 上世紀90年代以后, 含貶斥意義的'小姐'詞義出現回歸, 在某些社交場合, 成爲從事色情服務業的女性群體的代名詞. 小姐一詞被染上了貶義的色彩, 短短數年間, '小姐'一詞從尊稱變爲賤稱(楊先立, 2008:74).

한국어에서 비친족 호칭어로 사용하는 '아가씨'는 의사 친족 호칭어의 범주에서 포함하여 다음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다. 한·중 여성 통칭 호칭어의 대조

한국어와 중국어 여성 통칭 호칭어의 사용면에서 거의 비슷하지만, 중국어 여성 통칭 호칭어는 정치적 사회요인의 변화에 따라 반복적인 변화과정을 겪었다. 예컨대, 중국어에서 '同志(동무)'와 '師傅(사부)' 등 호칭어는 사회주의 혁명 후에 유행하다가 현재는 사용량이 줄어들고 사용범위도 축소된 반면에 '小姐(아가씨)', '女士(여사)' 등 여성 호칭어는 소멸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현재 다시 유행하는 현상들이 중국어 통칭 호칭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어의 통칭 호칭어는 의미론적 변화가 있지만, 비교적 안정된 발전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3.2.1.5. 한·중 여성 의사(疑似) 친족 호칭어

친족 호칭어는 혈연과 혼인의 연계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친족 성원 간에 서로 부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지만, 사용면에서는 친족 성원 이외의 대상에게도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친족 호칭어는 1차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익에 기초한 2차 사회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다.⁷⁴⁾ 이러한 호칭방식에 대해서는 일찍이 Park-Kim(1976)을 비롯하여, 박정운(1997), 왕한석(2000), 박영순(2001) 등에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들 연구들에서 일반인에 대한 호칭어 친족어가 사용되는 것을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개념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Park-Kim(1976), 왕한석(2000:72)에서는 의사 친족 호칭(pseudo or fictive kinship terms)으로, 박정운(1997:513)에서는 '매개 친족 호칭어'라고 보고 있고, 박영순(2001:272)에서는 MKT(Metaphorical Use of Kinship Term, 즉 친족어의 은유적 용법)이라고 보고 있다(강희숙, 2000:13). 본고에서는 친족 호칭어가 일반적인 호칭어로 대응되는 형식을 의사 친족 호칭어라고 정의하였다.

박갑수(1989:17)에서는 친족어가 일반적인 호칭어로 대응되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화자가 자신이 연령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직접 호칭하는 것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형, 언니, 오빠'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청자를 기준으로 그 신분에 어울리게 간접 호칭하는 것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74) 김희숙(2000, 2003)은 혈연과 혼인 등을 바탕으로 하는 친족집단을 '1차 사회집단'으로, 이익을 기초한 일반사회성원으로 구성된 집단을 '2차 사회집단'으로 나누고 있다.

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형'과 같이 부르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의사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 중국어에서의 현대 친족 호칭어(稱謂語)는 약 363개가 있는데 그 중 16개는 친족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고 가타 친족 호칭어는 대부분 의사 친족 호칭어로 사용되고 있다(葛星, 2008:43). 한·중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한·중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의 양상

언어	친족 호칭어 지시 대상	호칭 대상	의사 친족 호칭어 형식
중	奶奶	조모와 동년배, 나이 든 기혼 여성	奶奶, 夫姓+奶奶, 本姓+奶奶, 老奶奶, 說話人子/女/孫之名+她他+奶奶
한	할머니		할머니
중	伯母	어머니와 동년배, 나 이가 어머니보다 많 은 기혼 여성	伯母
한	아버지의 형수		아주머니/아줌마
중	媽媽	어머니와 동년배, 나 이가 어머니와 비슷 한 기혼 여성	大媽, 本姓+大媽, 本姓+媽, 本姓+媽媽
한	어머니		어머니(님)
중	娘	어머니와 동년배, 나 이가 어머니와 비슷 한 기혼 여성	大娘, 本姓+大娘
한	아버지의 형수		아줌마/아주머니
중	孀儿	어머니와 동년배, 나 이가 어머니보다 적 은 기혼 여성	孀, 大孀, 夫姓+孀, 夫姓+大孀, 說話人 之子/女/孫名+她他+大孀
한	숙모님		아줌마/아주머니
중	姨	어머니와 동년배, 나 이가 어머니와 비슷 한 여성	阿姨, 本姓+阿姨
한	이모		이모/이모님
중	嫂	자신과 동년배, 나이가 자기와 비슷하거나 이 상인 기혼 여성	嫂子, 大嫂, 夫姓+嫂, 大嫂
한	형수/새언니		아줌마/아주머니

중	姐	자신과 동년배, 나이가 자기와 비슷하거나 이상	姐姐, 大姐, 本姓+大姐, 名+姐姐儿
한	언니/누나	인 기혼 여성	언니/아가씨
중	妹	지신과 동년배, 나이가 자기보다 적은 여	妹妹, 妹子, 大妹子, 本姓+家+大妹子, 小妹
한	여동생	성	아가씨
중	姑娘	후배, 나이가 젊은 청	姑娘, 小姑娘, 姓+姑娘
한	딸	소년 여성	아가씨

<표 19>에서 보듯이, 한국어와 중국어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는 호칭 대상에 따라 대응되는 형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조모와 동년배, 나이든 기혼 여성에게 호칭할 때 한국어에서는 그대로 친족 호칭어 ‘할머니’로 대응되지만, 중국어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한·중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겠다.

가. 한국어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

<표 19>의 한국어에서는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로 차용되는 친족 호칭어 중에는 ‘아주머니(아줌마), 아가씨, 언니, 이모(님), 할머니’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⁷⁵⁾ 이러한 의사 친족 호칭어들을 직접 사용하거나 앞에 직업이나 이름을 붙여 비친족 대상자에 대한 호칭어로 쓰인다. 그러나 의사 친족 호칭어는 사용에 있어서 청자의 연령이나 신분, 지위 등의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가게의 여주인을 부를 때, ‘아주머니’라고 부른다. 이 경우 청자가 화자의 아주머니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나이라면 전형적으로 누군가의 아주머니가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근거하여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무영(1994)에서 현대 한국 사회 호칭어는 상대의 연령, 자기와의 연령차, 사회적 지위 등의 고려됨이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로 획일화된 호칭어가 두루 사용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한윤정(2002)에서는 ‘아줌마, 아가씨, 언니’ 등 여성 비친족 호칭어로 차용된 친족 호칭어를 가장 대표적인 단순 획일화된 호칭어로 간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식당이나 은행, 백화점 등에서 일

75) 고륙양(2007)에서 현대 한국 의사 친족 호칭어의 유형을 참조로 정리하였다.

하는 젊은 여성에게는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흥미롭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획일화된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는 유형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아줌마/아주머니

‘아줌마’는 친근형이고 그의 기본형은 ‘아주머니’이다.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아주머니’라는 여성 호칭어는 다음의 다섯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8) 아주머니:

- ㄱ. 부모와 같은 항렬의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 ㄴ. 남자가 같은 항렬의 형뻘이 되는 남자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 ㄷ. 남남끼리에서 결혼한 여자를 예사롭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 ㄹ. 형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 ㅁ. 손위 처남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고륙양(2007)에서 실제적인 언어 맥락에서는 ‘아주머니/아줌마’는 정보가 불확정한 여성 어른에게, 즉 화자가 청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경우, 청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호칭어라고 보고 있다.

(9) ㄱ. 아주머니, 오뎡 국물 좀 더 주실래요?

(40대 남자→30대 분식점주인)

ㄴ. 아줌마, 김밥 한 줄 더요.

(10대 여학생→40대 분식점주인)

ㄷ. 저기, 아주머니, 혹시 지갑 같은 거 못 보셨어요?

(20대 남자→50대 청소부)

‘아주머니’란 말은 전통적으로 위 항렬의 친척 여성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요즘은 비친족 호칭으로 변하여 일반인들이 널리 쓰는 의사 친족 호칭어로 정착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친족 호칭어를 의사 친족 호칭어로 차용하는 과정에서 사회

적인 요소로 인하여 그 말의 사용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줌마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최상진(1992)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아줌마’는 친절, 가까움, 인정, 서민, 인심, 시골성, 강한 생활력, 푸짐함, 억척 등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비천함, 뽕짝, 얽치없음, 이기적, 무식함, 한이 많음,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사람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도 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특히 젊은층들 사이에서 ‘아줌마’는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예를 들면, ‘교양이 없고 얽치없는 여자’ 등으로 그 이미지가 격하되어 가고 있다.

또한, 류재봉(1997:310)에 따르면 『생활 속의 예의』라는 책에서 “1970년대에 이르러 ‘사모님’과 ‘아주머니’와 ‘아줌마’의 3등급이 생겼다. 자가용 타고 옷 잘 입고 비싼 물건 군소리 없이 사면 사모님이라 하고, 살림하다 반찬거리 사러 시장에 나가면 아주머니라 하고, 물건의 가격을 물어보고 사지 않거나 값을 깎을 때 ‘아줌마’라고 격하시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하여 ‘아주머니’와 ‘아줌마’ 간의 차이는 격식이나 친근감의 차이 이외에도 대상자에 대한 부정의 정도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륙양, 2007:80).⁷⁶⁾

2) 아가씨

‘아가씨’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10) ㄱ. 시집갈 나이의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ㄴ. 손아래 시누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ㄷ. 예전에, 미혼의 양반집 딸을 높여 이르거나 부르던 말.

친족이 아닌 시집갈 나이의 여자를 대접해 부르는 데 쓰이는 ‘아가씨’는 여성 친족 호칭어에서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로 차용된 형태가 되었다.

한편, ‘아가씨’는 여러 직업에 붙어 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즉, 남을 부를 때에 그의 성명 혹은 직업만을 부르는 것은 약간 가볍게 여기는 느낌이 있으므로 여기

76) 실질적인 언어생활에서 ‘아주머니’보다 ‘아줌마’의 사용이 지배적인 결과(사전 조사에 의하면, ‘아줌마’가 75%, ‘아주머니’가 25%였음)에 충실한 것임(한윤정, 2002). 조항범(1996:780)에서 일반 어휘로서의 자격이 평칭보다 비칭에서 더욱 돋보인다고 하였다.

에 '아가씨'를 붙임으로써 존경의 의미를 부여하기로 하는 것이다.

- (11) ㄱ. 간호사 아가씨
- ㄴ. 안내원 아가씨
- ㄷ. 서빙 아가씨

그러나 '아가씨'도 '아줌마'의 경우와 비슷하게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의미론적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아가씨'는 식당과 같은 일반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⁷⁷⁾ 게다가 다방 등과 같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에게도 '아가씨'로 호칭하는 사회적 풍조가 있기 때문에 '아가씨'란 집값은 원래보다 오히려 격이 낮은 느낌이 들게 한다(한운정, 2002:27). 따라서 '아가씨'는 실제 언어 맥락에서는 예전보다 사용이 훨씬 줄어들었다. 이처럼 언어현상은 실제 한국어 언어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3) 언니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언니'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12) 언니:

- ㄱ.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향렬이 같은 동성의 순위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다. 주로 여자 형제 사이에 많이 쓴다.
- ㄴ. 남남끼리의 여자들 사이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위인 여자를 높여 정답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다.

여성 친족 호칭어로의 '언니'는 우선 여자 형제들 사이에서의 호칭어로 사용된다. 그 외에 서울지방 사람들은 형을 부르는 호칭어로 사용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

77) 국립국어원에서 1991년 12월 30일 발간한 「국어의 표준 화법(시안)」과 1992년 12월30일 발간한 「표준화법해설」에 의하면 식당 등 영업소의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에 '아주머니', '아가씨'를 쓰도록 하였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젊은 여자 종업원을 '아가씨'라고 부른다고 한다.

고 여성의 전유물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친족 호칭어로 쓰이는 ‘언니’는 또한 원칙적으로 여성들 사이에서만 허용된다. 이런 경우는 보통 선배와 같은 나이가 약간 많은 아는 손윗사람 여성에 대한 의사 친족 호칭어로 사용된다.

오늘날 서비스 업종에서 사용되는 ‘언니’는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서비스 업종에서 사용되는 ‘언니’는 여자 종업원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손님들에게나 동년배인 여자 손님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남자 종업원들이 여자 손님들에게 ‘언니’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강희숙, 2000).

한편, ‘언니’는 각종 직업 명칭에 붙어 호칭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 (13) ㄱ. 리포터 언니
- ㄴ. 관리자 언니
- ㄷ. 안내원 언니

4) 이모(님)/어머니(님)

‘이모(님)/어머니(님)’는 의사 친족 호칭어로서 ‘아버지나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여자에게 사용하는 말’로 사용된다. 이모(님)는 주로 어린 화자가 사용하고 화자가 어른이 되면 일반적으로 ‘아주머니’를 사용한다.⁷⁸⁾ ‘어머니(님)’은 화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한다.

5) 할머니(님)

‘할머니(님)’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4) 할머니(님):

- ㄱ. 아버지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 ㄴ. 부모의 어머니와 한 항렬에 있는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 ㄷ. 친척이 아닌 늙은 여자를 친근하게 이르는 말.

78) 류려나(2005:41) 참조.

‘할머니(님)’은 원래 상대된 친족 호칭어로 차용될 때 ‘나이가 많이 들다’는 뜻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비친족 여성 청자를 친근하게 부르는 데 쓰인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할머니(님)’은 ‘아주머니/아줌마’ 등과 같이 격하시키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의미론적인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것은 존대의식에서 크게 작용하는 연령적 요인으로 인하여 극존 대상인 ‘할머니(님)’에 대한 존대의식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어의 여성 친족 호칭어는 어휘수가 매우 많고 체계가 매우 세분화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로 차용된 친족 호칭어들은 오히려 단순화되는 추세가 보인다.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줌마/아주머니’, ‘아가씨’, ‘언니’ 등과 같은 형태는 어른과 아이의 구분 없이, 또한 대우의 정도 차이 없이, 상대의 연령, 자기와의 연령차이, 사회적 지위 등의 고려 없이 두루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무영(1994)에서는 현대 한국 비친족 호칭어의 문제점으로 다섯 가지를 정리하고 있다. 첫째,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없고, 둘째, 친척간의 호칭어가 비친족 호칭어로 사용되며, 셋째, 호칭어로는 예우의 정도를 분간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상대의 연령, 자기와의 연령차이, 사회적 지위 등의 고려됨이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로 획일화된 호칭어가 두루 사용되어 어떤 것이 예우의 호칭어인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서구식 호칭어가 분별없이 사용되며, 다섯째, 전통적인 호칭어가 오히려 진부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에 근대화의 결과로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의 발전 과정에서 신분적 차별이나 존비의 개념이 없어지게 되어 현대사회에서는 자유로운 사회분위기가 요구하는 보다 단순화되고 단일화된 호칭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친족 이외의 일반사람들과의 상호교류가 적었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어가 발달되지 못했던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잦은 왕래와 교류로 친족 호칭어는 발달되어 왔다. 그리하여 사회적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호칭어체계에서는 일반 호칭어의 부족을 친족 호칭어의 차용을 통하여 보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륙양, 2007:87~88).

나. 중국어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에서 사용하는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의 형태는 친족 호칭어를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친족 호칭어 앞에 ‘姓(성)-’이나 ‘老(노)-’, ‘小(소)-’등 접두사를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중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형식을 정리할 수 있다.

1) 여성 친족 호칭어의 원형으로 적용

<표 19>를 보면, 중국어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는 친족 호칭어의 원형으로 적용된 형태는 ‘奶奶(할머니), 阿姨(이모/이모님), 伯母(아주머니/아줌마), 姐姐(언니), 妹妹/妹子(여동생)’ 등이 있다.

가) ‘阿姨(이모)’의 사전적 의미⁷⁹⁾

(16) ㄱ. 이모의 방언 형태.

- ㄴ. 어린이가 어머니와 나이 비슷한 비친족 관계의 여자에 대한 호칭어.
- ㄷ. 유치원선생이나 유모 등에 대한 호칭어.

‘阿姨(이모)’는 나이가 어머니 동년배에 있는 여성 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한국어의 ‘이모(님)’와 같은 뜻으로 지니고 있다. 현재 중국어에서 연애하는 젊은 사람들이 서로의 어머니를 친근하게 부를 때 ‘阿姨(이모)’를 많이 사용한다(고륙양, 2007:89).

나) ‘伯母(아주머니/아줌마)’의 사전적 의미

(17) ㄱ. 큰어머님에게 사용하는 호칭어.

- ㄴ. 동창이나 동료의 어머니에게 사용하는 존칭 형식.
- ㄷ. ‘阿姨(이모)’와 같은 의미로 연애하는 젊은 사람들이 서로의 어머니를

79) 본고에서 제시하는 중국 어휘의 사전적 의미는 『現代漢語詞典』 참조.

친근하게 부르는 말.

‘阿姨(이모)’의 호칭 형식보다 ‘伯母(아주머니/아줌마)’는 더 점잖은 표현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伯母(아주머니/아줌마)’와 ‘阿姨(이모)’의 선택은 주로 상대방 부모의 나이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갑의 부모는 을의 부모보다 나이가 많으며 을은 갑의 부모에게 ‘伯母(아주머니/아줌마)’라고 부르고, 갑은 을의 부모에게 ‘阿姨(이모)’라고 부르는 것은 예의에 맞는 표현이다.

다) ‘孀儿/大孀(숙모님), 大娘(아주머니/아줌마), 嫂子/大嫂 (형수님/새언니)’의 사전적 의미

(18) ㄱ. 각각 숙모님, 아주머니, 형수님/새언니를 이르는 말.

ㄴ. 순위 비친족 기혼 여성을 이르는 말.

라) ‘姐姐(언니/누나), 妹妹/妹子(여동생)’의 경우는 의미적으로는 한국어의 ‘언니/누나/여동생’과 비슷하나 사용면에서 완전히 일치한 것은 아니다. 중국어의 ‘姐姐(언니/누나), 妹妹/妹子(여동생)’은 주로 어린이들이 비친족의 같은 연배에 있는 여성 청자에게 사용한다. 대학생을 비롯한 성년의 젊은층에서는 이름이나 ‘성+姐(언니/누나)’ 또는 ‘大(대)+姐(언니/누나)’, ‘小(소)+妹(여동생)’ 등과 같은 표기 형태를 사용한다.

마) ‘奶奶(할머니)’는 직접 호칭어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화자가 어린이가 아닌 경우에 이 호칭어를 채택하는 경우는 적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성/남편의 성+奶奶(할머니)’ 또는 ‘老(노)+奶奶(할머니)’ 등과 같은 표기 형태는 성인들도 많이 사용한다.

2) 성/남편의 성(姓/夫姓)+여성 친족 호칭어

‘성+친족 호칭어’는 의사 친족 호칭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주로 같은 연배에 있는 청자나 순위 청자에게 적용된다. <표 19>에서 ‘성+여성 친족 호칭어’의 형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여성 친족 호칭어 앞에 여성

칭자의 본성(本姓)이나 남편의 성(夫姓)을 붙은 의사 친족 호칭어, 앞에 본성을 붙은 의사 친족 호칭어, 앞에 남편의 성만 붙은 의사 친족 호칭어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 | | |
|----------------------------------|-----------|
| (19) ㄱ. 姓+奶奶/夫姓+奶奶(본성/남편의 성+할머니) | 張+奶奶/王+奶奶 |
| ㄴ. 姓+媽媽/媽 (본성+어머니) | 王+媽媽/劉媽 |
| 姓+大娘(본성+아주머니) | 趙+大娘 |
| 姓+阿姨(본성+이모) | 劉+阿姨 |
| 姓+姐(본성+언니/누나) | 李+姐 |
| 姓+姑娘(본성+딸) | 姜姑娘 |
| ㄷ. 夫姓+孀(남편의 성+숙모님) | 高+孀 |
| 夫姓+嫂(남편의 성+형수) | 潘+嫂 |

위의 예문은 중국어 '성/남편의 성+여성 친족 호칭어'의 형식을 갖춘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들이다. 이 표현은 잘 아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친숙한 의미를 지닌다.

3) '大-(대)/小-(소)' + 여성 친족 호칭어

'大-(대)+'여성 친족 호칭어의 형태는 주로 '大娘(아주머니), 大媽(아주머니), 大孀(아주머니), 大嫂(형수/형님), 大姐(언니), 大妹子(여동생)' 등이 있다. 이 중에서 '大妹子(여동생)' 외에 모두 연장자가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로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는 비친족 연장자에게 친근하면서도 예의 있게 호칭할 경우 사용된다. 농촌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던 이 표현은 현재 도시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잘 알거나 친하게 지내는 사이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연인의 어머니에게도 사용될 수 없는 표현이다. 즉 아주 잘 아는 사이가 아닌 칭자나 불특정 대상에게만 사용된다.

'小-(소)+'여성 친족 호칭어의 형태는 '小妹妹(여동생), 小姑娘(아이)'이다. 이러한 의사 친족 호칭어는 주로 어린이들이 서로 부를 때, 혹은 성인 화자가 불특정한 어린이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된다.

4) '老-(노)'+여성 친족 호칭어

'老-(노)'+여성 친족 호칭어의 형태에서는 주로 어머니나 할머니 연배의 여성 청자에게 사용하는 호칭이다. 예를 들면, '老奶奶(할머니)' 등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연하 화자가 연장 비친족 여성 청자에게 친근하면서도 예의 있게 호칭할 때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 형태는 '大-(대)+여성 친족 호칭어'와 비슷하게 불특정 대상에게 호칭어로 사용된다.

다. 한·중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의 대조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친족이 아닌 여성 청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친족 호칭어의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어의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는 한국어보다 많고 다양하다. 예를 들면, 중국어에서 부모와 비슷하게 나이가 많은 여성에 대한 호칭어는 '大娘(아주머니), 大媽(아주머니), 伯母(아주머니), 大孀儿(아주머니) 등이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아주머니/아줌마' 하나만 쓰인다. 그리고 한국어의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가 친족 호칭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흔히 친족 호칭어 앞에 변별적 기능을 하는 '大(대)-, 小(소)-, 老(노)-, 姓(성)-' 등을 붙여서 표현한다. 또한, 중국어에서는 화자와 청자 간 친소관계에 따라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가 다르게 사용한다. 한국어에서는 비친족 호칭어의 친소관계의 제약이 없다. 예를 들면, 중국어에서는 알고 있는 비친족 여성에게만 '본성/남편의 성+여성 친족 호칭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친소관계와 상관없이 '언니, 이모' 등 여성 친족 호칭어로 직접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중국어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의 '아가씨'라는 호칭어는 다 격이 낮은 느낌이 들게 하고 있다.⁸⁰⁾

80) 중국어에서 '아가씨(小姐)'라는 표현은 여성 이름 호칭어나 여성 통칭 호칭어로 쓰이지만, 한국어에서는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로 쓰인다. 이것은 서로 다른 어원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楊先立(2008), 梁軼灵(2009), 常慶丰(2003)에서는 '小姐(아가씨)'란 호칭은 중국에 20세기 90년대 이후부터 여성 청자에게 높임을 주는 호칭어에서 어떤 부정적인 뜻을 가진 단어로 변화했다고 하였다.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로서 '아가씨'와 같이 일반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과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호칭으로 많이 쓰인다.

3.2.1.6. 한·중 기타 여성 호칭어

가. 한국어 기타 여성 호칭어

한국어의 호칭어 사용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히 외국인 한국어 사용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여성 비친족 호칭어의 형태도 있다. 여성 청자의 '출신 지역명'이나 '남편의 성'에 각각 접미사 '-댁, -실' 등이 결합된 호칭어들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⁸¹⁾

- (20) ㄱ. 명성댁, 수원댁
 ㄴ. 이실이, 김실이

이런 호칭어들은 여성 청자에게만 사용되는 것이다. 전남 방언에서 접미사 '-네'를 붙여 호칭하는 방식도 있고 경기 방언에서는 '-실'을 '-집'으로 바꾸어 '김집, 이집' 등 형태로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호칭어 형태는 주로 또래 여성이나 손아래 여성에게만 사용되는 형태로 나이가 든 기성세대 화자가 많이 사용하는 호칭어이다.

나. 중국어 기타 여성 호칭어

현대 중국어에서 젊은 여성에게 사용하는 비친족 호칭어가 많이 나타난다. 예컨대, '美女(미녀)', '靚妹(미녀의 방언 형식)', 'MM(미녀)' 등이 있다. 'MM'라는 호칭어는 나이 어린 여성에게도 쓸 수 있다.⁸²⁾ 이러한 호칭어들은 보통 통신언어와 서비스업종에서 많이 사용한다. 본고에서 이러한 호칭어들은 중국어 기타 여성 호칭어로 분석하기로 한다. 예를 들면,

- (21) 美女, 給我一杯咖啡.
 아가씨, 커피 한 잔 주세요.

81) 강희숙(2007:159) 참조.

82) 'MM'는 미녀의 뜻이며, '美眉(meimei), 妹妹(meimei)' 등의 첫 소리로 만드는 호칭어이다.

중국어 기타 여성 호칭어는 일상생활에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 많이 사용하지만, 손윗사람과 친한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나이든 남성 화자가 젊은 여성 청자에게 사용하면 '아가씨'와 같이 격이 낮은 느낌이 들게 한다.⁸³⁾

다. 한·중 기타 여성 호칭어의 대조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기타 여성 호칭어의 대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한국어 여성 기타 호칭어는 주로 아는 여성에게 사용하며, 중국어 여성 기타 호칭어는 주로 모르는 사람에게 사용한다. 한국어에서는 모르는 젊은 여성 청자에게 사용하는 호칭어는 '아가씨' 하나뿐이고, 중국어에서는 젊은 여성 청자에게 사용하는 호칭어는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3.2.2. 여성 비친족 호칭어의 대조를 통해 본 한·중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한국어와 중국어의 여성 비친족 호칭어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한국어와 중국어의 호칭 체계는 서로 다른 언어 계통에 있는 복잡한 체계인 것으로 이해된다. 여성 비친족 호칭어는 화자와 청자의 친소관계, 상하관계, 성별, 연령, 혼인 여부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예를 들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중국어에서 화자가 남성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호칭할 때 앞에 성을 붙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변수에 따른 한·중 여성 비친족 호칭어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소관계, 상하관계,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사회계층 및 사회 정치 등 사회적 변수에 따른 여성 비친족 호칭어가 다르게 사용된다.

둘째, 성별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아가씨'라는 호칭어는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다 격이 낮은 느낌이 들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어에서 '아줌마'라는 비친족 호칭어는 젊은층들 사이에서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미지가 격하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는 이름이 독자적인 호칭어로 사용되는 것은 드물고 보통 '-양'처럼 성별 차이가 나타난 첨가 성분이 이름 뒤에 붙은 형태로 사용된다. 또한 한국어 여

83) 楊先立(2008:74) 참조.

성 2인칭 대명사형 호칭어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당신'처럼 다 사용할 수 있는 호칭어보다는 '자네'와 같이 남성 화자와 남성 청자 사이에 더 많이 사용하는 성별의 제약이 있다. 그런데 '선생(先生)'이란 이름 호칭어는 한국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이 여성 청자에게도 많이 사용되지만, 중국어에서는 제약을 받는다.

셋째, 상하관계에 따라 한·중 여성 직함 호칭어의 사용은 제약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면, 한국어 여성 2인칭 대명사형 호칭어는 윗사람에게는 쓰지 못한다.

넷째, 친소관계와 관련, 한국어 여성 2인칭 대명사형 호칭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할 때 많은 제약을 받는다. 중국어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는 앞에 '大(대)-, 小(소)-, 老(노)-, 姓(성)-' 등 첨가 성분을 붙여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중국어에서 화자가 남성인, 일반적으로 여성 청자와 오랫동안 같이 공부하거나 일을 해온 친한 사이의 경우에만 직접 이름을 부를 수 있다.

다섯째, 청자의 연령에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차별화된 호칭어를 사용한다. 특히 중국어는 대우를 나타내는 조사 성분이 없고성 앞에 '老(노)-/大(대)-/小(소)-' 등과 같은 연령적 차이를 나타내는 요소가 붙어서 사용된다.

여섯째, 청자의 사회계층에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의 직함 호칭어에서는 모두 직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정신적 노동으로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직업들이다.

일곱째, 청자의 혼인 여부에 의해 한국어 여성 비친족 호칭어에서는 미혼의 젊은 여성에게 '아가씨'를, 기혼의 나이 든 여성에게 '아줌마'라고 부르고 중국어 여성 비친족 호칭어에서는 미혼의 젊은 여성에게 '小姐(아가씨)'를, 기혼의 나이 든 여성에게 '阿姨(이모)' 등으로 부른다.

여덟째, 사회정치의 차이에 따라 중국어 여성 통칭 호칭어는 정치적 사회요인의 변화에 따라 반복적인 변화과정을 겪었다. 이에 비해 한국어의 통칭 호칭어는 의미론적 변화가 있지만, 비교적 안정된 발전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언어의 사회적 변수에 따른 한·중 여성 비친족 호칭어의 특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 사회적 변수에 따른 한·중 여성 비친족 호칭어의 특징

사회적 변수	한국어	중국어
성별	<p>①‘아가씨’, ‘아줌마’라는 호칭어는 격이 낮은 느낌을 들게 한다.</p> <p>②여성 이름 호칭어는 ‘-군/-양’과 같은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접미성분과 결합된 호칭어로 사용한다.</p> <p>③여성 2인칭 대명사형 호칭어는 성별의 차이가 없는 ‘당신’처럼 다 사용할 수 있는 호칭어보다는 ‘자네’와 같이 남성 화자와 남성 청자 사이에 더 많이 사용하는 성별의 제약이 있다.</p>	<p>①‘아가씨’라는 호칭어는 격이 낮은 느낌을 들게 한다.</p> <p>②‘선생(先生)’이란 이름 호칭어는 한국어에서 성별의 차이가 없이 여성 청자에게도 많이 사용되지만, 중국어에서는 제약을 받는다.</p>
상하관계	<p>①여성 직함 호칭어의 사용은 상하관계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p> <p>②여성 2인칭 대명사형 호칭어는 윗사람에게는 쓰지 못 한다.</p>	<p>여성 직함 호칭어의 사용은 상하관계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p>
친소관계	<p>여성 2인칭 대명사형 호칭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할 때 제약을 많이 받는다.</p>	<p>①화자가 남성인 경우, 일반적으로 친하지 않은 여성에게 호칭할 때가 앞에 성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다.</p> <p>②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는 앞에 연령의 구별적인 기능을 하는 ‘大-, 小-, 老-, 姓-’ 등을 붙여서 표현한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다.</p>
연령	<p>여성 청자의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호칭어를 사용한다.</p>	<p>①여성 청자의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호칭어를 사용한다.</p> <p>②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는 앞에 연령의 구별적인 기능을 하는 ‘大-, 小-, 老-, 姓-’ 등을 붙여서 표현한</p>

		다.
사회계층	직함 호칭어는 모두 직함은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정신적 노동으로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직업들이다.	직함 호칭어는 모두 직함은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정신적 노동으로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직업들이다.
혼인 여부	여성 청자 혼인 여부에 의해 호칭어를 다르게 사용한다.	여성 청자 혼인 여부에 의해 호칭어를 다르게 사용한다.
사회 정치		여성 통칭 호칭어는 정치적 사회요인의 변화에 따라 반복적인 변화과정을 겪었다.

위와 같은 언어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언어의 사회적 변수와 관련시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와 중국어 여성 비친족 호칭어에서 성별 요소가 가장 많은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 상하관계 요소에서는 한국어 여성 비친족 호칭어가 중국어 여성 비친족 호칭어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친소관계와 연령 요인에 있어서는 이와 반대로 중국어 여성 비친족 호칭어가 한국어보다 훨씬 많은 제약을 받는다. 사회계층 요소가 한·중 여성 비친족 호칭어에서 다소 비슷한 제약을 받고 있고, 사회정치 요소를 볼 때, 중국어 여성 비친족 호칭어는 정치적 사회요인의 변화에 따라 변화과정을 가지지만,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사회 정치 요소의 제약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한·중 여성 비친족 호칭어는 여성 친족 호칭어와 마찬가지로 성별 요소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또는 한국어 여성 비친족 호칭어에서 '아줌마'는 부정적 이미지를 포함하며, 중국어 여성 비친족 호칭어보다 성별 요소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중국어 여성 비친족 호칭어의 수는 한국어 여성 비친족 호칭어보다 훨씬 더 많고 연령에 따라 친소관계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비친족 호칭어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중국이 한국보다 더 높게 보인다.

다음, 여성 비친족 호칭어는 여성 친족 호칭어의 분석 결과와 달리 연령 요인의 영향빈도가 아주 높다. 또한 사회계층, 사회 정치 요소를 볼 때, 여성 비친족 호칭어에서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나타내지만, 여성 친족 호칭어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여성 호칭어를 유형별로 대조하고, 이를 토대로 두 나라 여성의 가족과 사회 내에서의 지위를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성 호칭어는 크게 두 가지, 즉 여성 친족 호칭어와 여성 비친족 호칭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바, 여성 친족 호칭어의 대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성별, 혼인 여부, 항렬 등 사회적 변수의 차이가 있어서 여성 친족 호칭어가 다르게 사용된다.

둘째, 성별의 차이가 있어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모계 호칭어를 부계 호칭어와 차별화한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화자의 성별에 따라 여성 친족 호칭어를 다르게 사용하며, 아내가 남편의 부계 가족을 부를 때나 남편의 아내의 부계 가족을 부를 때는 서로 다른 호칭어를 사용한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아내의 어머니에게 '장모님', 또는 '어머(니)님'이라고 부르지만, 중국어에서는 자기의 친어머니와 같이 '媽媽(어머니)'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중국어에서는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각각 '妹妹(여동생)', '弟弟(남동생)'로 호칭하지만, 한국어에서는 똑같이 '동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중국어 여성 친족 호칭어에서 화자는 남자 형제의 딸에게 '侄女(조카딸)'로, 여자 형제의 딸에게 '外甥女(생질녀)'로 부른다.

셋째, 여성 청자 혼인 여부와 관련, 한국어 여성 친족 호칭어가 다르게 나타난다.

넷째, 여성 청자의 항렬과 연령의 차이가 있어서 한국어에서는 대개 손윗사람에게 친족 호칭어의 높임형을 사용하고 청자가 손아랫사람일 때는 직접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두 나라 여성 비친족 호칭어의 대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소관계, 상하관계,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사회계층 및 사회 정치 등 사회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하에 여성 비친족 호칭어가 다르게 사용된다.

둘째, 성별의 차이가 있어서 '아가씨'라는 호칭어는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다 격이 낮은 느낌이 들게 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어에서 '아줌마'라는 비친족 호칭어는 젊은층들 사이에서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미지가 격하되어 가고 있다. 한국어는 이름이 독자적으로 호칭어로 사용되는 것은 드물고 보통 '-양'처럼 성별 차이가 나타난 첨가 성분이 이름 뒤에 붙은 형태로 사용된다. 또한 한국어 여성 2인칭 대

명사형 호칭어는 '당신'처럼 성별에 의한 차이가 없는 호칭어도 있지만, '자네'와 같이 남성 화자와 남성 청자 사이에 더 많이 사용하는 성별의 제약이 있다. 중국어에서 화자가 남성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호칭할 때가 이름 앞에 성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선생(先生)'이란 이름 호칭어는 한국어에서 성차별이 없이 여성 청자에게도 많이 사용되지만, 중국어에서는 제약을 받는다.

셋째, 상하관계에 따라 한·중 여성 직함 호칭어의 사용은 제약을 많이 받는다. 한국어 여성 2인칭 대명사형 호칭어는 윗사람에게는 쓰지 못한다.

넷째, 친소관계와 관련, 한국어 여성 2인칭 대명사형 호칭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할 때 제약을 많이 받는다. 중국어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는 앞에 '大(대)-, 小(소)-, 老(노)-, 姓(성)-' 등 첨가 성분을 붙는 호칭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다. 또는 중국어에서 화자가 남성인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여성 청자와 오랫동안 같이 공부하거나 일을 해온 친한 사이의 경우에만 직접 이름을 부를 수 있다.

다섯째, 청자의 연령에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차별화된 호칭어를 사용한다. 특히 중국어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는 앞에 연령의 구별적인 기능을 하는 '大(대)-, 小(소)-, 老(노)-' 등 첨가 성분을 붙여서 표현한다.

여섯째, 청자의 사회계층에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의 직함 호칭어에서는 모든 직함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신적 노동으로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직업들이다.

일곱째, 청자의 혼인 여부에 의해 한국어 여성 비친족 호칭어에서는 미혼의 젊은 여성에게 '아가씨'를 기혼의 나이 든 여성에게 '아줌마'라고 부르고 중국어 여성 비친족 호칭어에서는 미혼의 젊은 여성에게 '小姐(아가씨)'를, 기혼의 나이 든 여성에게 '阿姨(이모)' 등으로 부른다.

여덟째, 사회정치의 차이에 따라 중국어 여성 통칭 호칭어는 정치적 사회요인의 변화에 따라 반복적인 변화과정을 겪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 여성 호칭어보다 한국어 여성 호칭어는 사회적 변수에 따른 제약을 많이 받아왔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성의 가족과 사회 내에서의 지위는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높게 보인다. 그러나 여성 호칭어는 다양한 제약 요소의 영향을 받아 계속 동태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사전류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1999.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00.

한국어 자료

강현자(2005), 「한국어 호칭의 특성-사회언어학적 접근」, 『언어와 문화』, 1(2), 한국 언어문화교육학회, pp. 201~218.

강희숙(2000), 「호칭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0(1), 한국 사회언어학회, pp. 1~24.

_____ (2007), 「전남방언 여성호칭어의 유형과 분포-접미사형을 중심으로」, 『호남 문화연구』 40, 한국 사회언어학회, pp. 155~178.

_____ (2007), 「“자네”의 용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한국언어문학』 163, 한국언어문학회, pp. 5~30.

고륙양(2007), 『한·중 호칭어의 대조 연구』, 서울: 박이정.

구현정(1995), 「남녀성형 어휘의 사회언어학적 의미」, 『국어학』 25, 국어학회, pp. 99~135.

류려나(2005), 「한·중 비친척 호칭어의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류재봉(1997), 『호칭과 지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민현식(1995), 「국어의 여성어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 여성문제연구소, pp. 1~64.

_____ (1996), 「국어의 성별어 연구사」, 『사회언어학』 4(2), 한국 사회언어학회, pp. 3~29.

박갑수(1989), 「국어 호칭의 실상과 대책」, 『국어생활』 19, 국어연구소, pp. 10~32.

박정운(1997), 「한국어 호칭어 체계」, 『사회언어학』 5(2), 사회언어학회, pp. 507~527.

- 박창원 외 3명(1999), 『언어와 여성의 사회적 위치』, 서울: 태학사.
- 서민정(2005), 「한국어 여성 지칭·호칭어의 변화 양상」, 『우리어문연구』 30, 우리어문학회, pp. 327~349.
- 서정법(1969), 「여성에 관한 명칭고」, 『아시아여성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문제연구소, pp. 79~108.
- 신지언(2008), 「중국어 호칭어 분석」, 『인문과학연구』 20,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171~195.
- 양 혼(2007), 「한국어와 중국어의 호칭어에 대한 대조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한석 외 6명(2005), 『한국 사회와 호칭어』, 서울: 역락.
- 유예화(2004), 「현대한국어와 중국어의 호칭어 대조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창돈(1966), 「여성어의 역사적 고찰」, 『아시아여성연구』 5,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문제연구소, pp. 37~72.
- 이무영(1994), 『예절 바른 우리말 호칭』, 서울: 여강.
-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서울: 민음사.
- 이재승(1994), 「한·중 대비 호칭어 사용에 관한 연구」, 『大學院論叢』, 경남대학교 대학원, 14(2), pp. 105~120.
- 장승구 외(2002), 『동양사상의 이해』, 서울: 景仁文化社.
- 정학진(1992), 「한·일 양국의 대인명칭 및 호칭에 관한 비교 고찰」, 『논문집』, 34, 육군제3사관학교, pp. 83~98.
- 정현철, 송상미 역(2003), 『현대중국어 어휘학 입문』, 서울: 學古房.
- 조선일보사·국립국어연구원(1996), 『우리말의 예절, 상』, 서울: 조선일보사.
- 조영옥(2008), 「중국 호칭어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항범(1996), 『국어 친족 어휘의 통시적 연구』, 서울: 태학사.
- 崔在錫(1991), 『한국의 친족용어』, 서울: 민음사.
- 최재희(1994), 『한국어 문법론』, 서울: 태학사.
- 한윤정(2002), 「아줌마, 아가씨, 언니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보나영(1993), 「현대국어 호칭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중국어 자료

- 常慶丰(2003), 「現代漢語稱謂語系統的困境及其社會語言學分析」, 『中國語文論譯叢刊』 10, 中國語文, pp. 261~269.
- 陳建民(1990), 「現代漢語稱謂的缺环与泛化問題」, 『漢語學習』 1990(1), 中國社會科學院語言文學應用研究所, pp. 20~24.
- 陳松岑(1985), 『社會語言學導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崔學華(2009), 「女性性別研究的全新過程」, 『中共山西省委黨校學報』 32(2), 中共山西省委黨校, p.128.
- 戴 云(2003), 「傳統女性稱謂詞的歷史文化內涵審視」, 『哈爾濱學院學報』 24(9), 哈爾濱學院, pp. 84~87.
- 葛 星(2008), 「論新時代社交場合的女性稱謂語」, 『中華女子學院山東分院學報』, 中華女子學院, pp. 43~45.
- 郭錦桴(1993), 『漢語與中國傳統文化』,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郝媛媛(2005), 「當前女性社會稱謂缺位現象探索」, 『四川教育學院學報』 21(11), 四川教育學院, pp. 16~25.
- 黃伯榮·廖序東(1991), 『現代漢語(下冊)』, 高等教育出版社.
- 胡曉清,李淑娟(2006), 「漢韓擬親屬稱謂語類型學對比研究」, 『中國人文科學』, pp. 255~271.
- 胡曉清(2005), 「漢韓社會稱謂語比較」, 『中國語文學論集』 33, pp. 207~218.
- 金玄兌(2001), 「漢語社會交際稱謂語研究」, 上海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 李丹弟(2006), 「從小姐的命運看漢語稱謂的困境」, 『貴州民族學院學報』, 貴州民族學院, pp. 110~113.
- 梁軼灵(2009), 「稱謂語中性別歧視表現及發展趨勢」, www.studa.com.
- 劉立吾(2005), 「女性稱謂語國俗語義」, 『湖南科技學院學報』 26(2), 湖南科技學院, pp. 105~106.
- 齊曉峰(2004), 「漢韓親屬稱謂對比研究-兼談漢韓父母稱謂的對比」, 中央民族大學碩士學位論文.
- 宋 燕(2001), 「談漢語女性稱謂語的社會層級性」, 『遼寧大學學報』 29(4), 遼寧大學,

pp. 81~82.

楊先立(2008),「淺談漢語中對陌生年輕女性的稱謂語缺環」,『新余高專學報』13(6),新余高等專科, pp. 74~75.

張 博(2009),「我國古代女性悔稱與性別歧視」,『歷史與文化』, pp. 34~39.

張辰昀(2007),「從對女性稱呼的變化看女性社會地位的提高」,『湖北教育學院學報』24(7),湖北教育學院, pp. 43~44.

張 軍(2007),「淺析漢語中的女性稱謂歧視」,『安康師專學報』18(1),安康師專, pp. 63~65.

趙鐘淑(2005),「漢韓親屬稱謂語研究」,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朱禮金(2007),「漢語中女性稱謂歧視現象分析」,『研究者』,文學教育, pp. 44~45.